

두만강 하류의 지역구조 연구*

-경제특구입지를 중심으로-

이기석 · 이옥희 · 류충걸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두만강 개발계획에 포함된 중국 길림성 훈춘시 중심의 두만강 하류지역의 지역구조에 대한 분석연구이다. 특히 구체적인 연구과제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이 지역에 설치하려는 경제특구와 관련하여 입지적 여건이 지역구조에 얼마나 타당한가에 초점을 두고, 역사적 발전과정을 포함하여 기후와 하천연안지형의 특색, 경제기반과 인구 및 교통망에 대한 자료분석과 현장답사를 통하여 지역분석을 하였다. 두만강 하류의 훈춘지역은 인구 20만 이하의 범 경지역으로 조선족이 과반수에 이르며 농업과 채탄관련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대체로 낙후된 지역이다. 강 유역지역의 낮은 저지대는 범람원과 고기 사구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지역간 교통망의 발달이 미약하고 20세기 전후하여 국경 분쟁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두만강 개발계획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경제특구의 입지적 타당성과 관련하여 볼 때, 이 지역 자연환경의 제약점이나 노동시장의 제한점, 기반시설의 부족과 대도시 산업기반의 취약점 등이 경제특구 혹은 유사한 지역개발계획에 불리한 지역구조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산업시설 유치를 위해서는 이를 입지장애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이 지역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개발형식을 채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 서 론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두만강 하류지역의 경제특구 혹은 수출자유지역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지리적 입지조건에 대한 지역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에 대한 논의는 민간분야에서 학술회의 형식으로 처음 시작되어 지난 1990년 8 월 이후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주도하에 관련국가간(중국·북한·러시아·몽고·한국)에 공식화 되면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의 기본 구상과 관계된 것이다. 두만강 유역에 대한 지역연구는 자연과 인문분야로 구분하여 전형적인 경제특구 설치시 고려되어야 할 입지여건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지역에 대한 조사는 현재까지 답사가 가능한 두만강 하류지역인 중국의 훈춘에서 방천에 이르는 지역과 훈춘시를 중심으로 제한하였다.

지역분석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의 기존 경제특구 중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던 예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입지적 잇점

* 이 글은 교육부의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은 무엇이며, 이를 경제특구가 주변 지역과 어떤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둘째로 두 만강 하류의 지역구조 특성이 개발계획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특구입지에 타당한가? 그리고 타당하다면 어떤 지리적 여건이 이를 뒷바침하며, 불리하다면 그 입지요소들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상과 같은 과제는 두만강 하류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때 가능한 것으로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장조사 연구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개방정책의 성숙화, 소련 연방제의 붕괴와 새로운 국가 체계의 출발, 그리고 태평양 주변 연안지역에 대한 관심의 제고와 함께 동북아 지역의 지역개발이라는 점에서 지역연구로서의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우리와 인접 관련 국가로서 통일 이후에는 국경을 함께하게 될 지역이므로 앞으로 이 지역변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필요성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 최근 두만강유역에 대한 지역개발 계획을 전개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기초적인 지리적 지식의 필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지리적 연구는 지난 50여년간 이 곳으로의 물리적 접근이 어려워 전무하다.
- 중국, 북한, 러시아가 서로 경계를 하고 있는 두만강 하류의 좁은 회랑지역(corridor)은 자연 및 인문환경이 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 못됨에 불구하고, 다국적인 상호이익의 증진에 기초해서 정치적으로 미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현장 연구의 필요성이 시급히 증대되고 있다.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두만강 하류의 훈춘-나진-포시에트를 연결하는 小金三角地域에 경제특구 혹은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기에는 그 입지여건이 전반적으로 불리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입지에 대한 정확한 학술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관련 입지조건에 대한 지리적 분야의 정확한 평가가 학술적인 차원에서 요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투자계획 수립시에 준거 및 평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두만강 하류지역은 지난 100여년 간 정치적·군사적인 경계지역의 특성 때문에 개발이 중단되어, 지구상에서 자연환경의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지역의 하나로 남아있다. 따라서 개발계획수립 이전에 하천유역 전반에 걸친 환경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지역구조의 연구와 방법

지역연구에서 연구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의 파악과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틀을 마련하는 일은 오래된 과제의 하나이다. 우선 “지역(region)” 자체에 대한 개념 규정이 지리학내에서 논란이 되어온 기본적인 연구분야이며 연구자에 따라 아직도 적용되는 정의에서 공감대가 일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본질적인 개념에 대한 검토나 타당성에 대한 논의의 전개보다는 구체적으로 연구에 필요한 관찰대상과 현상을 중심으로 지역구조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지역으로 두만강 하류 지역은 일차적으로 하천 하류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저지대를 중심으로 농업과 임업 그리고 자원개발을 기초로 하여 인간생활의 핵심 영역을 이루고 있는 지리적 공간을 포함한다. 이 지리적 공간은 오랜 역사속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국가간의 정치적 통치영역 혹은 행정적 단위의 경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인간이 주어진 자연환경을 기초로 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토지를 이용하는 다양한 기술 적용에 따라 형성된 토지이용, 유용한 자원의 개발, 교통로 개발과 촌락 형성 등을 통하여 이 지역의 외형적인 구조적 특성을 형성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지역구조는 오랜 시일을 거치는 동안 정착주민의 문화적 특성, 정치형태, 외부와의 개방 정도, 지역간의 상호관계 성립정도 등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에 의해 지역내의 동질적이며 기능적인 구조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고 본다. 이 시각에서 볼 때 지역구조 연구는 현재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지역의 다양한 기능적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들의 개별적인 분석은 물론 이를 상호간의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 놓은 공간적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 하겠다. 동시에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하여 지역구조 연구는 현재의 지역적 문제점은 물론 잠재력과 개발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일역을 담당한다고 믿는다.

두만강 하류 지역의 구조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개념적 틀을 기초로 하여 하류지역 특히 생활권의 중심지인 훈춘을 중심으로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이 이 지역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살피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 경제기반과 산업발달 그리고 자원이 지역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현재의 교통·통신 체계가 지역구성 연계에 기능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기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경제특구(수출자유지역)와 관련된 자료수집 분야와 두만강 하류지역 연구등 두 부문에 대한 문헌연구와 현장 답사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그 밖에 각종 자료에 대한 지역 분석을 표와 지도로 정리하였으며, 현장답사시 관찰된 기록과 현지 주민과의 대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많은 부분 중 두만강 유역과 연변지방에 관련된 자료는 연변대 공동연구팀이 제공하여 준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특히 두만강 계획부분에 관련된 분야는 이에 직접 관계하는 연구팀과 유엔본부 UNDP자료와 통일원 관련 부처의 자료를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현장 답사는 이 작업 실시 전인 1992년 7월과 그리고 본 연구를 실시한 이래 1994년 1월 23일에서 2월 6일까지 실시하였다. 처음 답사는 1992년 7월 1주일에 걸쳐 연구책임자 이기석교수가 연변대 장삼환 교수의 현장 안내를 받아 훈춘과 방천지역 일대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두번째 답사는 국내팀으로 모두 5인(이기석교수, 이옥희박사, 김영현, 황병삼, 안재섭조교)이 참가하고 현장에서는 연변대 임철호교수와 려필순조교 2인이 동참하였다. 그리고 이후 본 작업을 돋기위해 시간을 달리하여 모두 5인의 연변대 교수(류충결, 심혜숙, 임철호)와 조교(남영, 려필순)들이 각각 1개월 씩 서울대학교에 체류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로 연변대 전 송림교수와 방옥선기자를 연구지원 인사로 초청하여 이 지역에 대한 workshop을 가진 바 있다.

문헌연구는 그동안 유엔기구인 UNDP에서 협의되어 온 제반 비공개 자료와 각종 문헌에 대한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아울러 중국 경제특구설치와 근황에 관련된 제자료를 정리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근간에 중국내에서 출간된 경제특구에 대한 문헌 목록과 국외에서 논의된 자료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책임자(이기석교수)가 1993년 7월 15일 - 26일까지 중국 경제특구인 深圳, 廈門, 상해 포동개발지역과 천진공업개발단지를 현지 답사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자료로는 두만강 조사지역에 대한 중국 길립성 출간 통계와 훈춘시 통계를 일차적으로 원용하였고, 현장조사에서 관찰기록 자료와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였다. 그 외에 UNDP의 두만강 개발계획에 이용된 자료를 선별적으로 분석에 적용하였다. 이 지역의 지도는 대축척지도 1/100,000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보다 큰 축척의 지도는 대외비 관계로 얻지 못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의 지도화 내지 토지이용도 작성을 위하여 중국내 토지이용자료와 기본도를 구득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미국 NASA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일부 차용하여 지형 분석에 사용하였으나 이와 상응하는 지형도가 없어 인공위성 영상을 통한 고도 조정이나 이미지를 입체화하는 구체적인 분석에 적용하지는 못하였다. 일부 훈춘지방에 관련된 자료는 소위 비공개되는 내부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내부자료나 공식자료 등이 모두 통계 분류방식이나 기준 단위, 생산액에 대한 표기가 국제적인 표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비교분석과 그 준거를 만들기가 어려웠다.

II. 수출자유지역과 경제특구의 입지적 배경

1. 수출자유지역의 입지

일반적으로 수출자유지역(Export Processing Zone: EPZ)는 古代의 자유항(Free Ports)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 후 1819년 싱가포르에 자유항을 설치함으로서 근대적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하였으며 20세기에는 Penang과 Hong Kong 등으로 확산되었다(U.N., 1985:9-10) 그러나 현재와 같은 EPZ는 1956년 Ireland Shannon 비행장에 처음 설치되고 이후 푸에르토리코(1962), 타이완(1966)과 한국에 이어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소위 제 3 세계 지역으로 확산되어 1990년에 27개국에 86개의 EPZ들이 있으며 총 종업원은 53만인에 이르고 있다(The World Bank, 1992).

개발도상국가에 EPZ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들어 선진국들의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이 보다 싼 노동 임금지역에 공장을 설치하여 보다 경제적인 국제시장을 점유하려는 노력과, 개발도상국들은 수출지향산업(export-led industry)을 발전시켜 외화를 획득하는 한편 국내 노동력의 고용을 높여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일치하게 되므로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공통적인 설치 목적은 우리나라의 마산

과 이리 수출자유지역 설치 때와 같이 1) 외국자본과 선진기술 유치(attracting foreign capital and technology); 2) 국내 고용증대(enhancing employment); 3) 수출과 외화 획득 증진(increasing export and foreign exchange earnings); 4) 국가경제와 공업화 증진(assistance to national economy and industrialization) 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수출자유지역의 설치를 통하여 부수적으로는 국제시장을 개척하게 되고, 수입대체 효과를 극대화하며, 동시에 국내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국내 기업과의 연계망 구축 등을 통하여 낙후지역 개발을 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메카니즘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EPZ는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관리기능, 기술, 시장개척기술, 그리고 국제 연계망과 같은 일련의 생산 메카니즘을 EPZ 설치 국가로 가져가 설치 국가가 제공하는 노동력과 공장부지,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일종의 가공무역이다.

EPZ를 조차하는 국가는 10-300ha정도의 면적에 외부와 차단된 울타리 내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행정적인 관리기능은 물론, 건물의 사용과 일정기간동안 수출상품에 대하여 면세정책을 실시하는 등 다국적 기업을 보호하여 이로부터 외화를 획득하고 국내 고용을 늘리게 된다. 이 때 EPZ의 설치는 원료의 반입과 제품의 반출이 용이한 항구나 공항 부근에 입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내륙지역의 교통연계가 빈약하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Wang and Bradbury, 1986:309). 아울러 노동시장과 서비스 수혜를 위하여 기존 대도시 주변부에 건설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회개발 시설이 불충분한 지역을 선택하여 EPZ를 설치하므로서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필리핀처럼 산업시설을 분산하여 균형된 경제기회의 제공, 균등한 소득배분을 성취한다는 취지하에서 대도시에서 원거리 지역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Wang and Bradbury, 1986).

우리나라 마산 수출자유지역은 면적이 1km² 이내로 해안을 간척하여 건설하였는데, 기존 도시내의 위치하는 특색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마산의 경우 비록 해안에 위치하더라도 원료와 상품의 수출입은 마산항을 통하기 보다는 대부분 국제항로가 있는 부산까지 육로로 수송되는 입지적 단점을 갖고 있다. 이리 역시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입지적으로 수출입과 교통연계에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Lee, et al., 1987).

일반적으로 경제특구의 입지요인은 그 유형에 따라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요구되는 시설과 원료, 노동력의 질적 사항 등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입지 요인을 추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전형적 유형인 수출자유지역의 선정시 요구되는 입지를 논함으로써 그 기본적인 여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입지의 주요 요소 가운데 원료의 공급, 시장의 확보, 자본의 투자, 정부의 행정지원과 같은 기본적인 분야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활동과 관련되는 자연적인 장애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제품의 국제시장 접근성의 양호, 풍부한 노동시장과 사회·정치적 안정, 기존 기반시설에의 접근과 다양한 서비스 용역의 수혜가 용이하고, 역외가공과

의 연계가 용이한 지역, 그리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들 수 있다.

이들 입지조건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제품과 원료의 반입과 반출이 용이한 지역이다. 대체적으로 철도와 도로교통이 편리한 임해지역이 최적지로 지적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제품의 소형화·첨단화와 국제시장의 변동에 단시간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제공항에 근접한 입지를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임해입지는 콘테이너 부두와 같은 기존 항구시설이 필수적이며, 국제해운항로와 연계되어야만 한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노동력의 공급이다. 대부분의 경제특구가 설치 초기에는 값싼 노동집약적 업체에 의해 지탱되기 때문에 풍부한 노동력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즉, 마산수출자유지역의 노동력의 구조를 사례로 보면 75% 이상이 여성 노동력이며, 이들 대부분이 24세 이하의 연령층이다. 그 뿐 아니라 이들 노동력의 75% 이상이 5년 이내에 직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배후지역으로부터 계속적인 노동력 공급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세째 요건으로는 가까운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공정의 일부분을 역외가공 혹은 하청가공(Outprocessing 혹은 Subcontracting) 할 수 있는 다수의 관련 지방기업체가 경쟁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 동시에 자유지역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서어비스의 제공은 물론 국내 원료공급을 점차적으로 높힐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이를 토대로 하여 기술과 관리기능의 이전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자유지역은 대도시와 잠재노동력이 풍부한 농촌을 배후지로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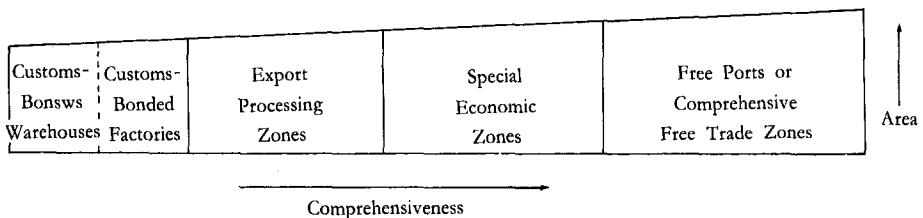
경제특구의 입지와 규모, 그리고 설치목적 등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이 3개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도시내 혹은 주변지역에 기존 산업시설이나 하부시설과 용이하게 연계될 수 있는 입지를 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자유지역들은 규모가 모두 10-300ha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는 도시전체를 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제품의 수출입이 용이하도록 한 경우로서 도시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째는 중심도시와 함께 주변 농촌지역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지역을 지정하여 외국자본의 투자가 공업생산 시설 뿐만 아니라 농업, 서어비스, 관광분야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확대된 개념의 경제특구지역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두만강 하류지역의 경제특구는 이 유형에 속한다.

2. 경제특구의 입지적 특성

UNDP에서 제안된 두만강유역 개발계획 전략의 하나는 1980년 이래 중국 남쪽 광동성과 복건성에 설치된 4개(深圳, 珠海, 汕頭, 廈門)의 경제특구와 비슷한 유형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특구는 이에 모체가 되는 수출자유지역(Export Processing Zone)의 일반적 입지 개념의 모형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경제개방을 시도하는 문호의 역할을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정책적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경제특구의 입지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深圳이나 珠海는 홍콩이나 마카오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汕頭와 廈門은 타이완과 가까운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적으로 타 공업지역이나 개발지역에서 고려되는 입지여건 보

다 대외 연계적인 측면에서 지역적인 상호관련성을 크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선정된 지역 자체는 기존 사회기반시설이 있는 공업지역이나 항만에 가까운 지역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낙후된 새로운 지역을 지정하였다는데 특색이 있다. 또한 설정된 특구의 규모는 처음부터 두가지 형태의 모형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Wong, 1991). 하나는 深圳이나 珠海와 같이 처음부터 넓은 지역을 지정한 형태이고, 또 다른 하나는 汕頭와 厦門처럼 처음에는 가공수출만을 고려한 좁은 지역을 지정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후자의 두지역은 여러차례에 걸쳐 확장되어 시역 전체가 특구내에 포함하는 형태로 일원화되었다. 1988년 4월에 추가 지정된 해난도는 도서전체(34,000km²)가 모두 특구로 지정되었다. 즉 深圳과 珠海 그리고 해난도의 경제특구 지정은 처음부터 수출자유지역과 같은 기본개념을 적용하여 단지를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과 서어비스, 관광, 농업분야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종합적 개발계획(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ning)으로 출발하였다. 이것은 Wong이 논의하고 있는 계획의 성격과 규모와의 관계<그림 II-1 참조>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상 EPZ로부터 규모상에서 전이된 형태로 보아도 무방하다(Wong and Chu, 1985:23). 그러나 이 중 深圳 경제특구는 사실상 실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개발과정에서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전체 개발계획중 초기는 쇄코우(蛇口)지역의 2.14km²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이중 1km²를 집중 개발하였다. 이후 1984년에는 면적을 16.8km²로 확대한 바 있다(招商局蛇口工業區, 1984). 쇄코우(蛇口) 공업단지는 사실상 수출지향 형태의 공업단지로 출발하였으며, 省政府의 허가과정에서 이 지역은 1979년 1월에 이미 승인 되었으며 深圳은 6개월 뒤인 1979년 7월 15일 珠海·汕頭와 함께 경제특구로 省政府에서 승인되었다. 이후 蛇口는 深圳경제특구의 일부분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이 세 지역이 인민 정부의 허가를 받게 된 것은 1980년 8월 26일 이었다(Gu, 1987). 深圳 경제특구내에 蛇口와 같이 좁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분리하여 EPZ와 같은 규모로 개발한 것은 분명히 이중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실질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1〉 The Concept of Free Zones



Source: Wong and Chu, 1985:23.

汕頭와 厦門과 같이 기존 도시내에 좁은 지역을 개발한 것은 처음부터 EPZ방식에 따라 시작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비록 1984년 이후에 그 구역을 확장하여 전시가 내지 도서지역과 외곽지역을 포함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지만 형태상으로는 전자의 지역과는 여러 측면에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특구의 입지는 일차적으로 제품의 수출을 고려하여 항만에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였으며, 특히 홍콩이나 마카오와 같이 국제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하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과의 인접성을 고려하였다. 이를 입지 초기는 국제경계로 인하여 상호연계가 직접적으로 성립되지 않아 불편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대도시로부터의 각종 서어비스 공급은 물론 기술 노동력의 출퇴근까지 가능한 지리적 혜택을 받게되어 특구운영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이를 입지선정에서 일차적으로 수출과 자본도입 그리고 노동력의 상호교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목표를 설정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광동성과 복건성의 두 성에 일찌부터 중국인의 해외진출이 많아 동남아와 미국지역의 교포들이 모국에 투자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 일찌기 해외 교역이 발달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深圳과 厦門에 해외교포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단지를 설정한 점과 厦門과 汕頭의 특구설치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타이완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특히 해외교포들이 투자하게 되면 그들로부터 자본과 기술외에 관리기능과 무역에 관련되는 제반 정보를 동시에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데 그 입지전략이 있었다. 아울러 Hong Kong, Macao, Taiwan이 모두 중국으로 통합된다는 전제하에 이에 가까우면서 기존 대도시를 피해 주변지역이나 소규모도시를 택하였는데 EPZ의 입지 특색이 있다. 그리고 낙후된 지역에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이 지역과 기존 지역간에 연계를 통해서 발전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존 대도시나 항구도시지역을 피해 주변지역과 소규모 도시에 특구를 입지시켰다. 이와같이 경제 특구의 입지선정이 중국의 심장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남쪽 지역에 실험적으로 설치함으로서 내적으로는 대도시 주변을 피해 아마도 자본주의 방식의 공단이 미치게 될 피해

〈표 II-1〉 중국의 경제특구현황(1991)

구분 특구	설치일	면적 (km ²)	인구 (인)	외국인투자 기업체(인)	외국투자액 (US\$ bil.)	공업생산액 (bil. Yuan)	수출량 (bil. Yuan)
심천	1980. 8	327.5	1,020,000	757	0.51	16.13	2.8
주해	1980. 8	121	190,000	411	0.108	4.2	0.488
산두	1980. 8	52.6	60,000	174	0.084	1.5	0.419
하문	1980.10	131	370,000	272	0.073	6.45	0.772
해난	1988. 4	34,000	6,540,000	220	0.075	2.75	0.41

자료: Huang Taihe, 1991, "Development of China's SEZ", Beijing Review, April, 8-14에서 발췌.

를 막아가면서 운영하고, 외적으로는 국제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입지를 선택한 점이 아시아의 다른 지역의 EPZ 입지와는 다른점이라고 할 수 있다.

III. 두만강 하류 개발계획과 훈춘경제합작구

1. 두만강 유역에 대한 연구 동향

이 지역은 오랫동안 학계로부터 큰 관심을 얻지 못했던 관계로 사실상 국내학자들에 의한 본격적인 지리적 연구성과가 매우 미약한 편이다. 그간의 연구는 대체로 세 분야로 나누어 평가될 수 있다. 하나는 중국내에서 성취된 연구분야이고, 둘째는 UNDP의 개발계획과 더불어 이루어진 각종 연구계획서와 현장조사연구 등이다. 나머지는 중국 개방 이후에 이 지역을 답사 혹은 탐사한 국내 학자들의 답사보고 형식의 연구들이다.

먼저 중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인문·사회계열 분야보다는 자연환경분야의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연변대학의 지리학부에서 발표한 연구 중 두만강의 수문특성과 자원개발 문제 연구, 토지자원 연구와 물자원 이용, 삼림 생태계의 분석연구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연변지구에 대한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두만강 하류지역에 대한 연구가 다소 행해졌다.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연구로는 두만강 항해통로 개척연구, 연변 경제개발전략 연구, 도문강유역 경제개발 연구, 농업기후자원 연구 등으로서 대부분이 지리학자들에 의해 최근에 연구되었다.

두만강 하류지역의 개발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장춘회의에서의 학술논문집을 필두로 하여, 연변대 주관의 국제인문지리학대회에서 발간한 논문집에는 이 지역의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과 보고서들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는 1991년 10월에 구체화된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Mission Report가 효시가 되며, 그 후 4번에 걸친 관련회의 자료(비공개)에서 부분적으로 이 지역의 현황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실제 지역답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국내연구의 대부분은 이 지역으로의 여행 혹은 단체 답사 후에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한 것들로서, 자료의 출처가 대개 훈춘 시정부가 제공한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즉,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지역연구가 아직 진행되지 못한 관계로 그간에 일부 공개된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이들 보고서들은 지역연구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경제특구의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 작업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2. UNDP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

UN기구의 하나인 UN개발프로그램(UNDP)에 의해 두만강 지역개발계획이 처음 주

관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7월 중국의 長春에서 미국의 East-West Center 와 중국 아시아 태평양 협회, UNDP가 공동으로 개최한 동북아지역 경제개발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두만강 지역을 동북아 여러나라의 협력하에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논의된 이후의 일이다(UNDP, 1991). 이후 1991년 12월 영토 공유국인 중국·러시아·북한과 관련 주변국인 한국과 몽골이 참여하여 UNDP의 협력하에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이 회의에서 두만강 지역 개발을 4가지 동북아 지역 협력 사업중 최우선으로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후 UNDP가 다국간 사업(ICP)으로 두만강 지역개발계획(TRADP)를 성안하고 유역 3개국(북한·중국·러시아)을 비롯한 관련 5개국(한국·몽골)간 개발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외무부, 1993.6).

〈표 III-1〉 UNDP 주관하에 개최된 회의

장 소	기 간	회 의 명 칭
1. 울란바토르 몽골	1991. 7. 6-7	제 1 차 동북아 지역개발 전략회의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TRADP) 회의
2. 평 양 북 한	1991. 10.	제 2 차 TRADP 회의 계획관리 위원회(PMC) 및 실무위원회(WG) 구성
3. 서 울 한 국	1992. 2.	제 1 차 계획관리 위원회(PMC) 회의
4. 북 경 중 국	1992. 10.	제 2 차 계획관리 위원회(PMC) 회의
5. 서 울 한 국	1993. 1.28-30	통신 전문가 회의
6. 뉴 욕	1993. 2.22-24	법률·금융 전문가 회의
7. 헬싱키	1993. 3.16-19	자원·사업·환경 전문가 회의
8. 북 경	1993. 3.30-4.1	사회간접시설 분야 회의
9. 평 양	1993. 5. 4-10	각 분야별 실무회의 및 제 3 차 PMC 회의
10. 뉴 욕	1994. 1.31-2.2	실무회의
11. 북 경	1994. 3.28-29	지역개발 전략 회의(RDS)
12. 모스크바	1994. 7.11-15	워킹그룹 4차 회의와 PMC IV 회의

첫 회의가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이래 최근까지 모두 12번에 걸친 실무회의와 계획관리 위원회(PMC)가 관련 당사국과 뉴욕·헬싱키 등에서 개최되었다. 처음 UNDP가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을 논의하면서 이 지역 개발이 동북아지역 경제개발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기본적인 이유로 이 지역에 풍부한 천연자원, 노동력, 관련국가간의 공업 발달 정도에 따른 상호 보완성(표 III-2 참조) 외에 동북아시아 지역을 관통하여 대륙과 해양을 연결할 수 있는 국제통로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즉 중국의 경우 흑룡강성과 길림성은 해양출구로서 두만강 개발의 필요성이 요망

되었으며 이 통로는 내륙국인 몽골에 해양진출의 가까운 국제 육상통로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물론 북한과 러시아 역시 태평양시대에 이에 대응하는 지역 개발이 필요한 시기에 이 지역 개발이 이들 국가의 희망사항과 일치하는 결과를 유도하게 되고 이웃국인 한국과 일본은 이 지역 개발을 통하여 부족한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두만강 통로를 따라 내륙 아시아와 유럽까지 가장 가까운 육상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두만강 개발은 주변국가와 당사 관련국가간에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인 기대 이익이 일치되는 하나의 장이 되었다는 점이 이 지역개발을 서두르게 된 원인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개발의 필요성은 동북아 지역의 냉전의 종식과 함께 비교적 개발이 뒤떨어진 이 지역에 대한 국가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호인식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정치적 협력체제를 구성하고 잠재자원을 활성화한다는 목표 등이 함께 제시되어 개발동기를 이루게 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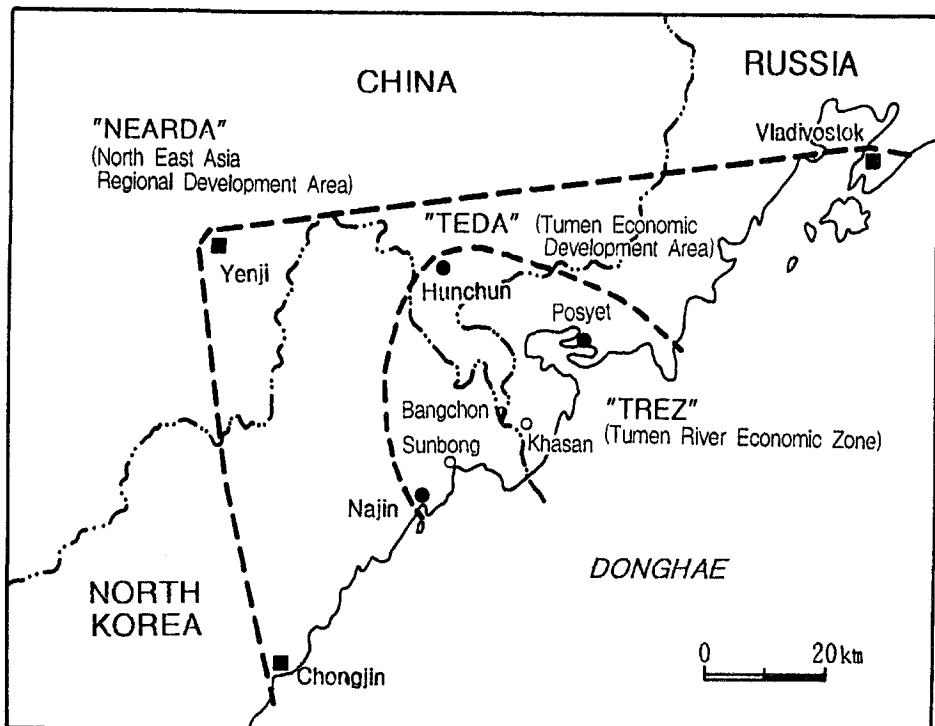
〈표 III-2〉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상호보완적 조건

국가 및 지역	장 점	단 점
日 本	자본축적, 입지가 자유로우며 풍부한 생산 설비, 선도적인 공업생산 및 경영관리 경험.	에너지 및 산업자원의 심각한 부족, 가축사료용 곡물과 일부 농산품의 부족, 노동력의 상대적 부족.
러 시 아 -極東지역	삼림, 비금속광물, 석유·가스·석탄, 일부 중화학공업체품(철강, 비료 등) 풍부.	농산품 및 경공업체품의 심각한 부족, 노동력과 자본의 부족 산업설비와 경영관리 경험의 미숙.
中 國 -東北지역	유리한 농업조건, 다양하고 충분한 농산품(옥수수·대두·육류·과일 등) 일부 공업제품·석유·석탄·건축재료, 한약, 풍부한 노동력.	자본, 선진설비, 기술, 경영경험의 부족, 일부 광물자원과 정비된 사회간접시설의 상대적 부족.
北 韓	풍부한 광물자원, 금속광물, 단순가공제품, 수산제품, 일부 공업제품, 풍부한 노동력.	자본부족, 농지 및 경공업체품의 부족, 후진적인 설비 및 기술.
韓 國	풍부한 자본, 선진적 기술, 입지가 자유로운 생산설비, 발달한 공업제품.	에너지와 공업자원의 부족, 가축사료의 부족, 노동력의 부족.
蒙 古	풍부한 축산제품과 광물자원(특히 磷石).	다른 동북아시아 제국과의 연계망의 미비, 자본, 기술설비, 농산품 및 경공업체품의 부족.

Source: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Exploitation of Triangle Area of Lower Tumen River(for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Changchun, 1991) Geographical Institute of Northeast Asia, Northeast Normal University, Changchun, Jilin Province, 130024, People's Republic of China.

Authors: Chen Cai, Yuan Shuren, Wang Li and Ding Sibao.

〈그림 III-1〉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Zone



그간에 UNDP는 실무회의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 개발에 대한 몇가지 중요한 개발 전략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하나는 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 그 수단으로 공업과 상업 중심지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즉 이 지역을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해운·수송 중심지 및 가공제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이 지역의 개발을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의 발전적 계기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 공업개발을 위해서 그간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확산되어 지역 경제발전의 밀바탕이 되고 있는 수출자 유지역(EPZ)과 중국이 남쪽해안에 설치한 경제특구(SEZ)와 동일한 개발 개념을 원용하여 종합적으로 관광·무역·금융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국제 중심 도시 혹은 광범위한 대도시권을 개발하기 위하여 두만강 연안의 중국·북한·러시아 국경지역의 상당부분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이 개발전략은 시급한 교통중심도시의 개발, 두만강 하류 지역의 특색, 그리고 지역 규모에 따라 세 개의 경제지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개의 경제지역은 두만강 경제지역(Tumen River Economic Zone: TREZ), 두만강 경제개발지역(Tumen River Development Area: TEDA),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개발지역(North East Asia Regional Development Area: NEARDA) 등으로 TREZ는 초기에 중국인에게 소황금 삼각지역으로 알려진 지역으로

북한의 나진-중국의 훈춘-러시아의 포시에트를 환상으로 연결하는 대략 1,000km² 면적의 두만강 하류 지역에 해당된다. 이 지역이 현재 두만강 개발에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TEDA는 소위 대삼각 지역으로 알려진 지역으로 북한의 청진-중국의 연길-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여 짤때기 같은 모습을 하는 지역으로 면적은 대략 10,000km²에 달한다. 세번째 NEARDA 지역은 TEDA 지역 밖에 약 370,000km² 면적에 달하는 동북아 지역에 해당된다(<그림 III-1> 참조).

현재까지 UNDP는 개략적인 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관련국가간에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1994년 11월에는 개발 협정서에 관련국가 책임자들이 서명하게 되어 있다. 본 UNDP의 TRADP의 자세한 계획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접근이 곤란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교통계획이나 환경평가계획 중에서 부분적인 것에 대한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UNDP의 TRADP와 별개로 1992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러시아 역시 대블라디보스톡 자유경제 무역지대 계획(GVFEZ)을 수립하여 부분적으로 건설에 착수하고 있다(UNIDO, 1991). 마찬가지로 중국도 1989년 이후 훈춘 변경경제합작구를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두만강 하류지역은 사실상 UNDP의 TRADP가 실시하기도 전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3. 훈춘시 변경경제합작구

중국은 1989년 이후 두만강 유역에 대한 다양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UNDP의 TRADP와는 별도로 진행하여 왔다. 즉 두만강 황금 삼각주에 중심축을 이루는 훈춘과 방천을 잇는 유역에 대한 개발구상은 UNDP에 의한 개발계획이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길립성과 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 내부적으로 경제특구설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학수, 1993: 21). 일차적인 계획은 1989년 「훈춘경제개발구총체 규획대강」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훈춘·방천 개발계획」의 윤곽이 1990년 훈춘 인민정부에서 마련되었으며(김학수, 1993: 23), 같은 해 9월에 길립성에서 「훈춘하류계획」과 「도문강 종합개발규획대강」이 비준되었다. 이후 훈춘시는 갑급 개방시가 되고 1992년에는 대외 개방적 변경도시로 도시 명명되고 「훈춘시 변경경제합작구」 설치가 국무원 21호 문건에 따라 비준되었다(<표 III-3> 참조). 이후 이 합작구는 총 통제 면적 16.67km²을 설정하여 이 중 5km²를 계획면적으로 하여¹, 현재 2.28km²에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위치는 훈춘시로 부터 3km 떨어진 훈춘강을 건너 남쪽에 있으며, 러시아 국경 장령자 까지는 6km, 북한 국경 사타자 까지는 14km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합작구의 입지적 조건으로는 훈춘시와 접근성이 높으며, 지세가 평탄하고 지역이

I 국무원특판공실에서 훈춘시 변경 합작구 설립시 그 범위는 북쪽으로 훈춘하가 이남 800m 지점까지, 서쪽으로는 훈춘-장영자 도로까지, 동쪽으로는 馬川子鄉-電線村 도로까지, 남쪽으로는 潘家溝 이북 4,000m 지점까지를 경계로 하며 면적은 5km²로 사정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표 III-3〉 中國 吉林省 珲春邊境經濟合作區開發計劃

1989.	〈珲春經濟開發區總體規劃大綱〉 착수
1990. 9	省政府의 比準
	〈珲春下流規劃〉과 〈圖們江綜合開發規劃大綱〉 편제
1991. 11. 9	國務院比準珲春市為甲級開放城市
1992. 3. 9	國務院比準為對外開放的邊境城市
	國務院21號文件에 따라 珲春市邊境經濟合作區 설치
1992. 9. 14	國務院特區辦公室 特辨字 第48號: 合作區 設立許可 (면적은 5km ²)
1992. 10. 21	合作區 기반시설 착공
1993. 5. 28	珲春市邊境經濟 合作區 管理委員會설치
1993. 6.	圖們-珲春 철도개통(64km) 珲春-珲春동상구: 개항지(17km) 珲春-沙坨子통상구(11km) 도로포장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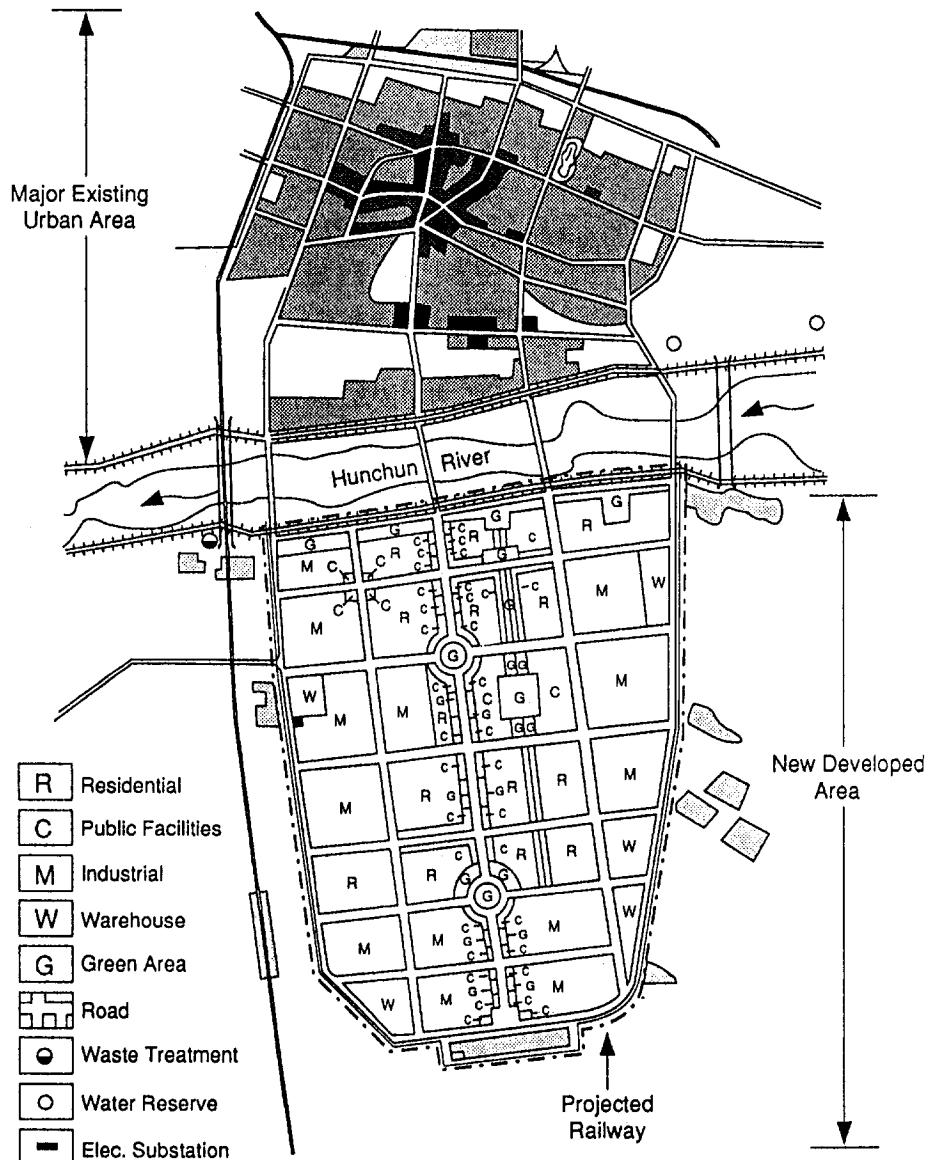
광활하며, 지면 부하력이 30톤/m²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건설에 적합하고 풍부한 수자원, 전력자원, 인접한 러시아와 북한의 통상구, 편리한 교통연계, 낮은 인구밀도와 지상건축물이 없어 합작구 건설이 유리하다는 것이다(최심, 1993:74-75).

合作區의 전체 계획도에 따르면 공업용지를 중심으로 창고용지, 교육과학연구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 교통시설용지와 기차역, 체육시설, 거주용지, 보세구역 등 종합적인 소도시 건설과 같은 토지이용계획을 갖추고 있다(〈그림 III-2〉 참조).

이 합작구의 토지 이용계획에 따르면 수출자유지역(EPZ)에서 볼 수 있는 순수한 가공수출단지라고 규정하기보다는 보다 종합적인 생활여건이 함께 공존하는 소규모 공업도시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이 합작구는 수출 가공업 위주의 공업을 중심으로 금융, 무역, 보세업, 상업과 서비스, 관광과 위락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경제특구의 구성요소와 흡사하다.

현재 합작구 始發區는 소위 “六通一平”이라고 일컫는 급수, 급전, 도로, 배수, 통신, 급열의 6가지 기반시설공사가 일관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시발구 중에 이미 일부는 생산시설과 생활서비스 시설이 완공되어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보세창고와 표준공업용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만강 지역 개발과 함께 시기적으로 동시에 합작구가 설치됨으로써 이 합작구 건설이 중국의 두만강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중국정부 입장은 크게 다르다. 중국은 이 합작구 허가를 4개 변경도시 黑河, 綏芬河, 珲春, 滿洲里市를 함께 대외개방확대 변경도시로 1992년 지정하면서 국경도시에 대한 정책의 하나로 각 도시내에서 일정구역을 구획하여 內地企業 투자 유치위주의 대 독립국가연합 수출가공업 및 관련 3차 산업 건설을 위한 변경 합작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함, 1992, 제 21호 참조). 그러므로 사실상 훈춘 합작구의 출현은 두만강 지역개발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재로는 전

〈그림 III-2〉 環春市 邊境經濟特區 開發計劃



부를 개관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개발면적이나 계획방향, 정책 등이 현재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이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자유지역 설치 계획과 비교하여 볼 때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중국은 두만강 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하

여 독자적인 백지계획을 서둘러 작성해야만 할 것이다.

IV. 두만강 하류지역의 지역구조

1. 지리적 개관과 역사적 배경

(1) 지리적 개관

본 연구지역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만강 하류지역은 대체로 중국의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 지역과 일치한다. 훈춘시는 시구를 포함하여 모두 12개의 행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 두만강과 인접하는 행진은 밀강, 영안, 춘성, 삼가자, 판석, 경신동 6개 행정구역으로, 면적(5,119.7 km²)은 시전체 면적의 약 1/3 정도가 된다. 훈춘시는 북한 및 러시아와 경계를 이루는 두만강 하류지역의 대부분을 접하고 있으며, 북한의 합경북도와는 139.5km, Russia와는 232.7km에 달하는 경계를 나누고 있는 국경 지역이다(<그림 IV-1> 참조).

훈춘시 전체 인구가 1993년에 19.8만이며, 이 중 시가지에 집중된 인구는 약 9만 정도로 아직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유동인구가 시구지역에만 약 12만인이 상주하는 것으로 추계되어 사실상 시지역 인구는 20만이 넘는 것으로 평가하여도 된다. 이 인구규모는 연길시 인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앞으로 인구증가를 고려한다면 머지않아 조선족 자치구내에서 수위 도시로 성장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이 지역이 1992년 10월 21일 국무원에 의해 훈춘번경합작구로 비준되기 전까지는 농업, 임업, 광업 중심의 경제기반에 의존해 온 대표적인 소외지역이었고, 국경무역을 통하여 소규모의 시장경제가 유지되어 온 낙후변경지역이었다. 그러나 1991년 UNDP에 의한 두만강 개발의 잠재성이 평가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관련국가간에 협의되기 시작하면서 지역 발전이 급속히 진행되고 많은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2) 역사적인 배경

기록에 따르면 신석기시대의 주거지로부터 시작하여 고구려시대와渤海시대의 많은 유적지가 산재하고 있어 역사적으로도 한반도 일부분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발해시대에는 이곳 훈춘에 있는 八連城에 발해의 세번째 首都인 東京龍原府(785-794)를 두어 나라를 다스린 바 있으며, 발해국 시작 이래 일본과의 교역과 국교를 위한 주요 교통로인 “日本道(해상비단길)”가 훈춘을 지나 장령자를 거쳐 Kraskino에서 일본에 이르렀다. 사실상 발해의 멸망 후(949년) 遼-金-元-明을 거쳐 清代(1644년)에 이르기 까지 이 지역은 중국의 변방으로 그 역할이 미미하였다. 그러나 1677년부터 200여년 간 실시된 封禁令으로 이 지역에 대한 조선과의 마찰이 시작되었고, 1710년 이후 청나라와 국경문제로 여러차례 협의가 있었으나 합의된 것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여진족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에 조선인들이 농업을 목적으로 두만강을 건너와 정착하면서, 이 지역에

〈그림 IV-1〉 훈춘시 행정구역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우리에게는 오래동안 間島地方으로 친숙해 있는 지방이다.

현재와 같은 훈춘지방의 경계는 1860년 청·러간의 북경조약에서 연해주를 러시아의 영토로 할양하므로서, 그 윤곽이 형성되었다. 이 때 토자비를 비롯한 4개의 국경비와, 16개 기호, 그리고 1개의 동주대를 국경을 따라 설치하였다.

그간 많은 조선인이 이미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1882년이후 개간이 본격화되면서 개간을 위한 정착이 많아졌다. 1900년 러시아가 잠시 훈춘을 포함한 간도지방을 점령한 바 있었고, 1909년 간도협약 이후에는 일본 통감부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때 처음으로 두만강이 조선과 청나라 사이를 가르는 경계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 후 일제가 1931년 만주사변이후 間島지방을 식민지화했으며, 근대식 도로망과 철도가 건설되었다.

훈춘지역을 흐르는 두만강을 따라 삼국간의 국경문제는 이후 계속되었다. 삼국국경을 이루고 있는 기점인 土字牌界로부터 防川의 張鼓峰을 지나 沙草峰과 洋館坪에 이르는 사이의 경계는 1880년이래 중·소간에 다소 이견이 있어 왔는데 특히 1938년에 와서는 이 경계를 따라 일본과 소련간에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접전이 일게 되었다. 이 일로 일본군과 소련군의 전투를 치룬 일을 張鼓峰事件이라고 하며 이 전투에서 일본이 완패함으로써 소련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따라 현재와 같은 중·러 경계는 물론 중·조간의 두만강 국경이 윤곽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는 두만강을 따라 중국과 북한과의 경계는 일반적인 관계를 벗어나 상호 협의하에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1/10만 지도상에서 관찰된다.

2. 하천유역의 자연환경 특색

(1) 지질과 지형

琿春을 중심으로한 豆滿江 하류지역은 넓은 하천에 의한 범람원의 발달보다는 사실상 두만강이 선행성 특성을 갖고 있어 敬信에 이르기까지 좁은 계곡을 따라 흐르고 있다. 敬信이하에서는 배후에 많은 습지와 넓은 범람원을 형성하면서 동해로 유입하고 있다. 지형적으로 이 지역은 크게 琿春江 유역의 넓은 분지지역과 대반령 남쪽의 敬信과 防川의 두만강하류 低地帶로 구분된다.

琿春강의 저지대, 즉 琿春盆地는 낮은 지역이 25m 정도의 고도를 이루고 있으나, 대부분은 100-200m 정도의 고도를 이루고 있는데 대략 면적은 600km²이다. 북쪽은 헤르센기 및 연산기 관입화강암과 고생대 폐름기 습곡산지로 형성되어 있는 높은 盤峯과 大麗峯 산맥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사실상 이 양산맥이 훈춘강의 지류들의 분수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 분수계를 따라 老爺峯(1477.4m)와 磨盤山(1145m), 販西山(1023.9m) 등의��峰이 즐비하게 발달하고 있다. 이 분지의 남쪽은 1000m 이하의 구릉성 산지의 분수계를 따라 러시아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대체적으로 남쪽 산맥은 琿春분지 방향으로 낮은 경사의 산록지형을 이루고 있다.

지질시대로 볼 때 瑶春분지의 형성은 중생대 중·상 쥐라기 때부터 시작되어 신생대 초기에 단층 핵락작용으로 대규모 분지로 발전하였는데, 이때 이 지역에 평범위하게 발달했던 호소 주위의 삼림과 육상 퇴적물에 의해 石炭層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 제3기 漸新世 말기에 상승하였으며 이후 표층의 암석층은 삭박되어 현재와 같은 평坦한 지형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분지의 중부는 洪積層이 그리고 하류는 沖積平原을 이루고 있으며 이 면적은 300km²에 달한다(궁계서외, 1985:61). 이러한 지형형성 과정으로 瑶春분지의 지하에는 많은 석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 시가지는 물론 팔연성 부근까지 3m 정도만 깊이 내려가면 석탄층이 발견되는데, 훈춘-사타자 중간에 위치한 성서 탄광이 대표적인 예이다.

(2) 하류의 低地帶과 砂丘분포

훈춘분지의 남쪽 板石을 지나 大盤峯(514.7m)과 소반령을 넘으면 경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에 넓게 전개되는 평원은 하류에 발달한 저지대의 중심부를 이룬다. 권하 남쪽에 수류봉 서쪽 산록을 지나 토자비까지는 좁고 낮은 화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화랑지역의 지형은 고도가 150m 내외의 산지와 砂丘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신에 전개되는 저지대의 평지는 두만강이 하류에 이루어 놓은 자유사행의 지형적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남쪽에 산재하는 구릉성 산지인 水流峰(414.7m), 沙草峰(77.1m), 張鼓峰(155.1m)등은 두만강의 자유사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특히 경신평원에 발달한 頭道泡와 二道泡子를 비롯한 9개의 泡子(호수)들의 형성은 대부분 하천의 자유사행으로 형성된 배후습지로 인정되지만 사행에 지형적 장애요소가 된 수류봉과 같은 산지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를 호소의 형성과 관련되는 요소들로는 玉泉島과 九沙坪과 같은 下中島의 발달과 경신에서 구사평을 거쳐 池登坪에 이르는 하안을 따라 복합적으로 발달한 自然堤防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연제방은 현재 경신에서 圈河에 이르는 도로의 서쪽에 발달하고 있으며 이를 자연제방이 오랜시일에 걸쳐 충복되어 비슷한 위치에 복합적으로 발달하므로서 사실상 두만강의 천연적인 제방 구실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두만강 연안을 따라서 이 지역에 1970년 이전에 일차 제방을 건설하였으나, 지난 1986년 대홍수 때 이 제방과 자연제방을 넘어서 범람하게 되어 제방을 따라 발달했던 구사평이 모두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그 후 도로의 동쪽에 새로운 촌락을 구성하여 모두 이전하였으며, 현재 일부만 옛 지역에 남아 있다. 현재 하안을 따라 새로운 제방작업이 진행중이나, 건설중인 새 제방의 높이도 종전 제방보다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이는 제방건설은 북한과 협의를 거쳐 제방 높이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두만강 하류에 발달한 砂丘의 분포는 광범위하며 그 규모도 다양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砂丘形成原因이나 分布에 대한 地形學的 기초적 연구나 관찰평가에 대한 기록을 찾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사실상 어려운 설정이다. 현장 조사와 1/10만 지형도 상에서 분석한 자료를 종합하면 그 분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요약 할 수 있다.

연구지역내에서 사구의 분포는 防川입구로 부터 사초봉에 이르는 하안을 따라 고도 20m-60m 수준까지 넓게 발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관찰된 사구는 구릉상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하천 연안 지역의 사구는 현재도 형성과 파괴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이 구릉상의 사구에 한때 자랐던 잡목들이 사구의 퇴적과 성장으로 인하여 묻혀 있는 현장이 관찰되었으며 구릉의 대부분이 피복되지 않은 것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도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고도가 높은 사구에는 피복 식물이 대체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다. 또한 사구가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은 사구의 하천쪽 경사가 오르기 힘들 정도로 매우 급하다는 점이다. 만일 사구발달이 중단되었다면 이 지역의 기후조건이나 피복발달을 고려 할 때 현재와 같은 경사를 유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침식에 의하여 상당히 그 모습이 상당히 훼손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낮은 지역에서는 그 형성과정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가 힘들어 오래 전에 형성되었던 사구가 지금은 파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간다. 이 지역 사구발달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주요한 분포로는 양관평에서 회충원에 이르는 북서-남동방향의 사구지역이며, 여기를 지나 권하에 이르면 이미 많이 훼손되어 경지로 전환된 사구들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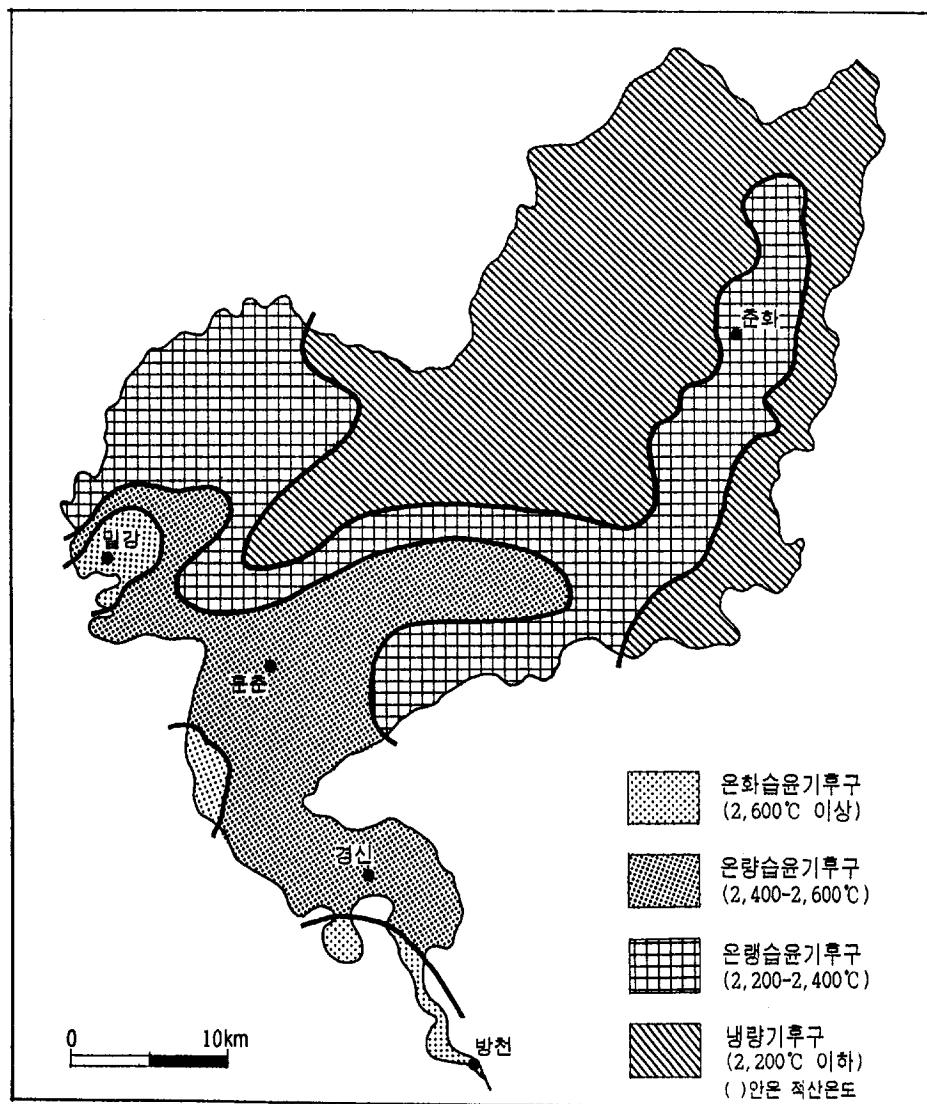
보다 대규모의 사구들은 두만강 대안지역인 北韓 慶興郡 中比坪에 발달하고 있다. 즉 경신과 옥천동 건너 편에 산재해 있는 10여개로 구성된 이 전형적인 砂丘群은 沙漠地城에서 관찰되는 것과 흡사한 사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砂丘의 北西 斜面은 대부분 깊숙한 골을 이루고 있었다. 이는 현재 파괴되고 있는 과정의 사구와 흡사했으며 배후 사면에는 피복이 덮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만일 관찰대로라면 이들 사구들은 이 지역에 불고 있는 타월풍에 의해 해체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모래의 일부분이 계절적인 타월풍에 의해 이 주변에 다시 운반되어 쌓이거나 원거리로 운송되어 퇴적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술은 보다 장기간에 걸친 조사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들 일련의 사구군이 두만강 하류에 이와 같이 거의 규칙적인 방향성과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면서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에 어느 하천 유역에도 이같은 사구의 발달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사구의 분포와 형성과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앞으로 이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이들 사구의 성장과 파괴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타월풍에 의해 모래들이 이동되어 하류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잠재적 피해방지를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많은 방풍림을 식목하는 일을 고려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이 지역 개발이 본격화되면 이들 사구의 양질의 모래들은 모두 건축자재로 이용되거나 주요한 수출원자재로 변모될 전망이 높아 이곳 관리들은 사실상 낙관적인 견해이다. 그렇지만 사구의 형성과 이들의 이동 및 타월풍과의 관계는 필히 밝혀져야 할 과제의 하나라고 본다.

(3) 중온대 대륙성 계절풍기후

연변지역의 대부분이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간에 기온의 교차가 크며 대륙기단과 해양기단의 영향권에 있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지역으로 훈춘은 이들 지역중 대체적으로 주변 지형과 근접한 해양의 영향을 받아 연변지역 내에서 높은 평균기온과 연 강수량이 많은 지역의 하나이다. 연변기후의 소구분에 의하면 훈춘지역을 훈춘근해성 계절

〈그림 VII-2〉 훈춘시의 기후 구분도



풍 소기후라고 칭하고 있다(궁계서外, 1985:177). 이 구분은 연중 10°C 이상의 기온을 적산한 통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의 기후구로 구분하고 있다.

1) 온화습윤기후구(2,600°C 이상), 2) 온랭습윤기후구(2,400-2,600°C), 3) 온랭습윤기후구(2,200-2,400°C), 4) 냉량기후구(2,200°C 이하)(〈그림 VI-2〉 참조).

훈춘의 연 평균기온(1957-1979년 평균)은 5.7°C이고 가장 더운 8월이 21.1°C, 추운 1월이 -11.3°C로서 11월에서 3월 까지가 5개월간은 평균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는 추운 지역이다. 평균 10°C 이상인 달은 5월에서 9월까지 불과 5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1957년에서 1973년까지 추일기상자료에 따르면(길립성 기상국, 1977) 1월 평균기온이 가장 낮았던 해는 1963년에 -13.3°C였다. 1967년에는 8월이 22.7°C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서울의 7월 평균 24.5°C와 크게 편차를 이루지 않는 것으로 여름 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추웠던 겨울로는 1972년 2월에 16일간을 최저기온이 -20°C 이하를 기록했으며 동년 2월 6일에는 최저 -32.5°C까지 기록한 바 있다. 최저기온 만을 고려하면 10월 25일경부터 4월 12일경 까지 대부분 영하를 기록해 왔던 것으로 보아 겨울 기간을 5개월 보름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훈춘지역의 연강수량은 서울에 절반정도되는 611.2mm이지만 연변의 다른 지방과 비교해 볼 때, 강수가 많은 지역에 해당된다. 1957-1973간 연평균을 보면 최다년이 1959년에 842.9mm, 가장 적었던 해는 1977년에 365.0mm정도였다. 6월에서 8월간에 연중 강수량의 59%가 내리고 있으며 12월-1월에는 평균 24mm로 전체 강수량에 4% 정도 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즉 겨울 강설량은 사실상 이 지역에서는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훈춘 지역내에서도 敬信과 防川부근에서는 연평균은 850mm 정도 기록하고 있다. 이 지역 강수량으로 볼 때, 낮은 지대의 벼농사는 관개시설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적은 강수량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두만강과 훈춘강의 유역지역으로 수원이 풍부하여 오히려 해마다 치수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후요소 가운데 연중 탁월한 바람은 이 지역의 농사와 일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곳에서는 “훈춘 봄바람에 소머리 깨진다”라는 속어가 전언되고 있는데, 이는 3월-4월 봄에 부는 대륙 탁월풍인 편서풍과 5-6월에 해양 편동풍 때문인 것으로 본다. 훈춘강 유역에 넓은 평원에는 이들 탁월풍을 막기 위하여 질서 정연하게 방풍림이 자라고 있어 이 지역 경관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 또한 봄에 이 탁월풍이 불 때 모래바람이 많다는 주민들의 전언을 고려해 보면 이들 바람이 두만강연안의 사구형성과 이동에 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된다.

3. 조선족 중심의 인구

(1) 인구의 성장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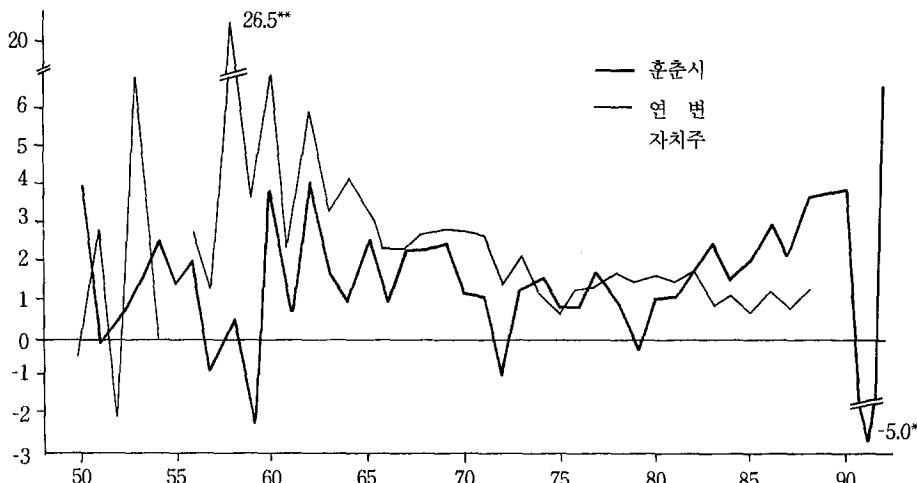
훈춘시는 新中國이 성립된 이래 지난 40여년간 인구증가율이 90%에도 못미치는 침체 지역으로서 1992년 현재 인구 규모도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 도문시 다음으로 인구 187천인의 작은 시이다². 그런데 이 인구는 주변 농촌지역인 향·진을 포함한 것으로서, 실

제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시구 내의 상주인구는 10만에도 못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도시의 도로망이나 외형적 규모는 우리나라의 20-30만에 해당되는 지방도시에 못지 않다.

개혁·개방이전 까지의 훈춘시 인구증가 속도는 중국평균이나 연변자치주 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늦은 편이었다. 그 원인은 첫째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국경지역이라 하여 外地人们的 출입이 극히 제한되었으며, 둘째 훈춘의 공업이 낙후하여 많은 기술자들이 외부로 유출했으며, 셋째 경제기반이 조성되지 못한 까닭에 해방이래 항상 유입인보다 유출인이 많았고, 네째 산아조절정책의 실시에 따른 출산율의 저하에 있다.

이와같이 훈춘시의 인구변천은 중국의 정치·경제적 요인과 훈춘시 자체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받아왔는데, 이를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그림 IV-3>에서와 같다. 대약진 운

<그림 IV-3> 훈춘시의 연도별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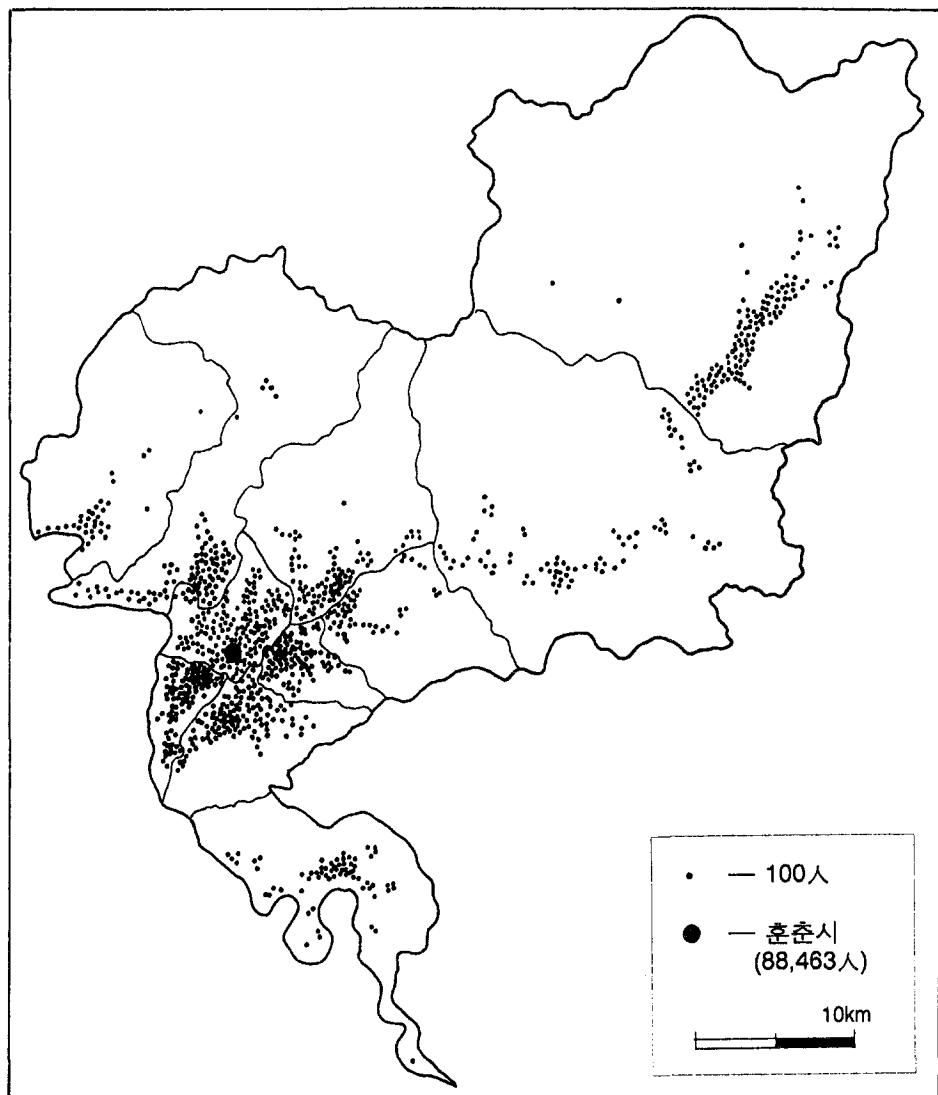
* 양수진이 도문시로 편입됨에 따른 감소.

** 문화혁명이 연변자치주로 편입됨에 따른 증가.

동으로 정치·사회적 불안정기였던 1950년대에는 사회적 이동이 심하여 인구수의 연변화가 컼고 연변자치주에 비해 인구증가율은 완만하였다. 60년대 들어 연평균 2,000명 정도가 증가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데 이는 비교적 높은 출생률과 더불어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이 일대의 임산 및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노동력의 유입과 영안발전소의 건립에 따른 인구이주의 결과이다. 문화혁명의 여파가 가시고 사회질서가 잡히기 시작한

2 가구당 인구수는 3.5인(가구수 51,331)으로서 대도시인 서울의 3.8인(1990) 보다 오히려 낮아 중국 인구정책의 엄격한 실천을 볼 수 있다.

〈그림 IV-4〉 훈춘시의 인구분포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晚稀少運動’³과 같은 인구저성장 정책의 영향으로 인구는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적 현대화 건설시기를 맞아 농·공업의 발전으로 훈춘은 연변자치주中最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며 특히 80년대 중반이후 나타나는 인구의 급성장은 두만강하구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 붐에 의한 인

³ later marriage, longer spacing between births, fewer children.

〈표 IV-1〉 훈춘시 지역별 인구 변화

연 도 성 시	1975	1980	1985	1989	1992	
					인구수	인구밀도
훈춘시*	137,474	143,364	156,733	177,453	187,005	37
시 구	22,512	29,358	49,706	65,615	88,463	18,315
춘화진	10,292	11,303	12,199	12,333	12,416	8
판석진	12,119	11,691	11,514	11,125	11,579	58
정신진	8,667	8,089	7,109	6,434	6,566	20
마천자향	9,015	8,997	8,955	8,672	9,256	110
양포향	4,948	4,820	4,807	4,517	4,481	20
삼가자향	10,631	10,471	9,946	9,796	9,846	174
영안향	9,663	10,683	13,181	9,295	9,844	17
밀강향	3,722	3,487	3,388	3,254	3,134	8
합달문향	13,168	12,221	11,728	8,624	8,506	23
마적달향	8,559	8,100	8,344	8,207	7,988	7
춘성향	8,255	8,261	-	13,856	14,926	194
양수진**	-	15,883	15,856	15,671	-	-

* 1975년 이전 훈춘시 인구규모

1950 100,483;

1955 106,222;

1960 109,093;

1965 117,160;

1970 131,682;

** 도문시 소속으로 행정구역 변경.

자료: 延邊朝鮮族自治州計劃生育委員會, 1990, 「延邊人口統計資料匯編」.

琿春市 統計局, 1992, 「琿春市 國民經濟統計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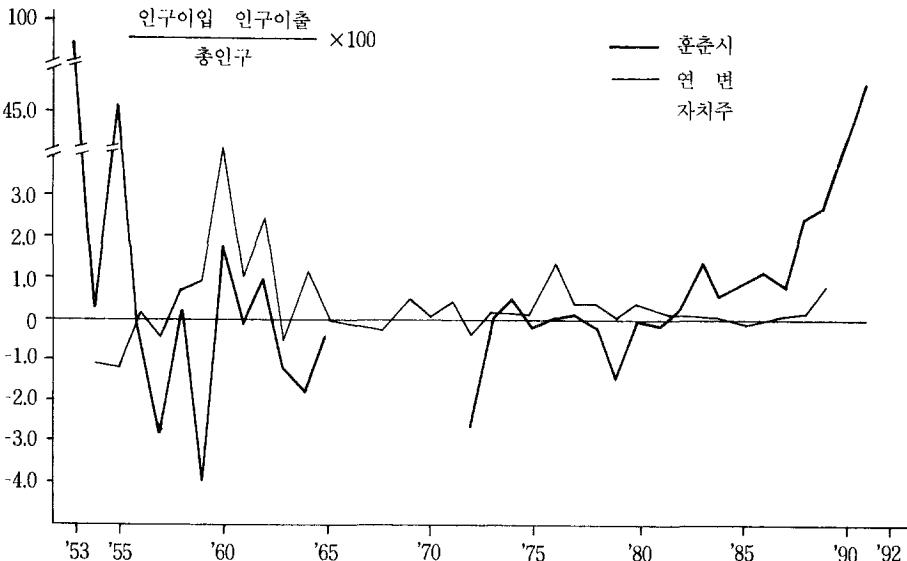
구유입에 기인한다.

훈춘시 인구변화를 향·진별로 보면(표 IV-1), 1975-1992년간 훈춘시 인구증가율은 36%인 데 시구만의 인구 증가율은 293%에 달하며, 이 기간동안 시구의 인구증가량(65,951명)은 훈춘시 전체의 증가량(49,531명)을 웃돌고 있다. 반면, 춘성향과 춘화진을 제외한 농촌 지역들은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정체현상을 나타내는 극단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 현상은 인구분포도<그림 IV-4 참조>에서 확인 되는데, 시구지역에는 인구밀도가 2만에 가까운 인구조밀현상을 보이는 반면, 시구에서 떨어진 먼 농촌지역일수록 인구밀도가 회박하게 나타난다. 이로서 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발전과 대비되는 농촌지역의 정체가 이 지역에서도 진행중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인구이동

출생율이 높지 않은 사회에서 인구의 사회적 이동(인구의 유출입)은 인구변화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훈춘시 인구 변화를 사회적 증감인 인구 유출입을 통해서 살펴보면〈그림 IV-5〉, 연변자치주의 인구이동이 비교적 안정된데 비해 훈춘시는 인구유동이 심하였다. 즉 50년대 전반에는 인구유입이 현저한 반면, 후반에는 유출이 현저했다. 60년대 초 이후에도 인구유출현상이 계속되다가 80년대 들어 인구의 유입량이 다시 늘어났다. 특히 1992년 훈춘시 인구 유입이 자치주 전체 유입의 25.5%를 차지하여 사회적 증가(10,688명)가 자연증가(1,034명)를 크게 상회한다는 점에서 두만강 경제특구 개발이 최근 훈춘시 인구 증가의 큰 자극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92년에 훈춘시로 유입된 인구 대부분이 비농업 인구(15,125명으로서 85.9%)라는 점을 통해서도 경제개발구역으로서의 중앙정부의 지원과 해외로 부터의 투자, 그에 따른 풍부한 일자리 등에 의한 이 도시의 매력도를 느낄 수 있다.

〈그림 IV-5〉 훈춘시의 사회적 인구증감



각 행정단위별 인구 유출입량을 89년과 92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표 IV-2), 훈춘시 전체에 걸쳐 유출량은 줄어 들고 유입량이 크게 늘었으며, 전체 인구 유입량에서 시구의 비중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공업이 발달한 영안향을 제외한 모든 진과 향에서는 인구의 유입보다 유출이 크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두만강 경제특구의 직접 대상지인 경신과 판석에서는 인구유입량이 유출량을 상회한다. 또한 춘성향은 시구에 버금가는 높은 수치의 인구 유입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구에 접한 향으로서 미처 도시 호

구로 지정받지 못한 농업인구들이 도시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이 향이 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간 이동을 제한하고,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가 용이하지 않은 사회주의 체제의 인구정책하에서 시구에 인접한 춘성향으로의 유입량 증가는 필연적 현상으로, 개발도상국 어디에서나 경험되는 도시 거주 선호와 이농현상이 훈춘시의 시구와 그 주변 농촌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2년 춘성향에서 증가된 인구 1,177명중 1,031명이 사회적 증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표 IV-2〉 훈춘시 각 행정단위별 인구 유출·입 변화

구 분 성 시	1989			1992		
	유 입	유 출	증 감	유 입	유 출	증 감
훈춘시	11,986	7,206	4,780	17,640	6,952	10,688
시 구	9,097	3,638	4,362	13,459	4,082	9,377
정화가	2,373	1,320	1,053	4,276	1,150	3,126
신안가	3,056	1,559	1,497	4,229	1,693	2,536
하남가	1,559	451	1,108	3,350	524	2,826
광명가	2,109	308	1,801	1,604	715	889
성 진	829	1,159	330	1,085	834	251
춘화진	418	445	-27	240	392	-152
판석진	287	400	-113	538	256	282
경신진	124	314	-190	307	186	121
향 진	2,060	2,409	-349	3,096	2,036	1,069
마천자향	188	341	-153	605	229	376
양포향	106	167	-61	116	172	-56
삼가자향	230	301	-71	197	220	-23
영안향	581	361	220	776	410	366
밀강향	78	152	-74	93	142	-49
합달문향	150	339	-189	171	207	-36
마적달향	322	266	56	107	414	-307
춘성향	405	482	-77	1,031	242	789

자료: 延邊朝鮮族自治州計劃生育委員會, 1990, 「延邊人口統計資料匯編」.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 1993, 「延邊統計年鑑」.

(3) 인구구성

국경지역이라는 입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훈춘의 성별 인구구성은 전통적으로 남초현상을 보여왔다. 〈표 IV-3〉에서 확인되듯이 1934-42년간 남여성비는 훈춘현이 현재 연변

지방인 간도성에 비하여 항상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정부수립후 연길의 성비는 서서히 낮아지는 반면 훈춘은 남자의 비율이 계속 증가되어 왔다. 특히 90년대 개발붐과 더불어 성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표 IV-4〉 참조). 향·진별로는 훈춘성시·춘화·마적 달 등이 성비가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임업과 광업개발로 외지로 부터 남성 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현상이다.

〈표 IV-3〉 간도성과 훈춘의 남녀성비: 1934-1942

단위: 여성 100에 대한 남자의 비

구 분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1	1942
偽間島省	117.82	117.30	116.73	119.59	115.70	119.39	119.97	116.97
조선족	108.38	108.29	110.26	111.67	108.07	110.70	111.73	110.04
琿春縣	122.37	118.39	123.11	125.68	120.90	121.73	121.24	121.19
조선족	112.00	-	112.99	116.22	110.84	113.63	105.04	109.86

자료: 崔昌來 외, 1992, 「延邊人口研究」, pp.72-73에서 발췌

〈표 IV-4〉 연길과 훈춘의 남여 성비: 1953-1990

단위: 여자 인구 100에 대한 남성비율

연도 시	1953	1964	1982	1990
연 길	111.69	107.24	103.09	103.22
훈 춘	100.10	102.77	103.22	105.53

자료: 중국 보통인구조사자료 1953, 1964, 1982, 1990.

연령별 인구구성은 지역노동력 사정과 인구변화 추세를 예견할 수 있는 지표로서 유용하다. 훈춘시 연령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1953은 전형적인 후진국형의 인구피라미드 형태를 보이나, 1982년에는 불완전하나 종형에 가까운 패턴으로 변하였다. 이같이 급속한 변화는 1972년 중국정부가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한데 기인한다. 그러나 72년 이전의 출생자가 가임연령에 달하는 80년대 중반 이후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다소 증가

〈표 IV-5〉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구성비(%)

연 도 연 령	1953	1982	1990
1- 15	42.0	29.0	25.0
16-60	54.9	63.7	67.8
61-	4.2	7.3	7.2

자료: 최창래 외, 1992, 「연령인구연구」, 연변대학출판사, p.207.

하였다. 90년도의 연령별 인구구조 또한 큰 변화가 없이 종형패턴을 보이고 있다(〈표 IV-5〉 참조).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인구의 2/3를 차지하여 양적인 면에서는 당분간 노동력의 부족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훈춘시가 중국내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자치주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민족구성에 대한 고찰도 본 지역의 연구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특히, 이미 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 노동력 공급원이 조선족⁴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인 국내기업의 진출이 예견되는 만큼 각 민족의 구성과 그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사료된다.

먼저 자치주 전체와 훈춘시를 비교해 보면〈표 IV-6〉, 훈춘시에는 상대적으로 조선족의 비중이 높다. 참고로 자치주에서 조선족 비중(1992)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정시(68.8%)이며, 연길시, 도문시, 화룡현 등이 60% 가량 된다.⁵ 반면 한족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돈화시(92.3%), 안도현(72.8%), 왕청현(63.7%)이다. 훈춘시가 자치주에서 유일하게 두 민족간에 비슷한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만족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데 자치주 전체에 거주하는 만족의 35.1%가 훈춘지역에 집중해 있으며, 양포와 삼가자는 만족 자치향이다.

그런데 〈표 IV-6〉에서 보듯이, 연변자치주내 민족간 인구증가율은 심한 불균형을 이루어왔다. 조선족의 증가율이 매우 낮은데 반해, 한족의 꾸준한 유입으로 자치주의 경우 1964년 이래 한족의 수가 조선족을 넘어서 40여년 전의 민족 구성이 지금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훈춘시도 과거에 비해 한족의 비중이 두배에 이르렀다. 한족의 계속적인 유입으로 인한 자치주내 조선족의 비중 감소는 곧 소수민족 자치주로서의 자격⁶을 상실케 해서 그간 조선족들이 누렸던 많은 지원과 혜택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이 같이 훈춘시에서 한족비중의 증가는 1965년 이후 훈춘시의 탄광개발, 영안발전소 건설, 임업발달 등을 계기로 유입된 인구의 대부분이 한족 노동자였던 까닭이다. 중국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한 자녀 갖기가 보편화된 한족에 비해 소수민족 우대 정책에 의해 조선족은 두 자녀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족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자연증가를 상쇄할만큼 한족 유입 노동자가 많음을 뜻한다. 특히, 자치주 전체에서 한족과 조선족 간 비중은 80년대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데 반해 훈춘시는 1989-1992의 단 3년 사이에 개발붐을 탄 많은 한족 노동자 유입⁷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표 IV-7〉은 행정구역별 각 민족의 거주비중율을 나타낸 표이다. 우선 민족을 중심으로 봤을 때, 조선족에 비해 한족은 특히 시구에 집중해 있다(59.7%). 이는 중국 전체에서 주류 민족인 한족이 소수민족 자치주에서도 여전히 우세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4 일례로 93년부터 훈춘시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의 (주)쌍방울(중국에서는 동일침직영업소)은 350여명의 종업원중 80%가 조선족이다.

5 답사 기간중 조선족의 비중에 따른 도시 간의 차이를 뚜렷이 느낄 수 있었는데, 훈춘시에 비해 용정시와 연길시에서는 언어로 인한 불편이 훨씬 적었다.

6 특정 소수민족의 비율이 30% 이상이면 자치주로 지정받게 된다.

7 1989년 교하 탄광 노동자들(주로 한족)의 대량유입.

〈표 IV-6〉 조선족과 한족의 비중 변화(1953-1992)

단위: %

구분 연도	훈춘시			연변 자치주		
	조선족	한족	기타민족	조선족	한족	기타민족
1953	66.3	22.8	10.9	60.2	37.4	2.4
1964	62.4	27.3	10.3	48.1	49.7	2.2
1982	56.6	33.3	10.1	40.3	57.4	2.3
1989	52.0	37.9	10.1	40.9	56.5	2.6
1992	45.7	44.3	10.0	40.2	56.9	2.9

자료: 延邊朝鮮族自治州計劃生育委員會, 1990, 「延邊人口統計資料匯編」.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 1993, 「延邊統計年鑑」.

시사한다. 즉, 중국사회에서 농촌 보다는 도시 호구로 지정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능력과 생활을 의미하는데, 조선족에 비해 비중이 낮은 한족이 오히려 도시에서는 더 높은 비중을 점한다는 사실은 사회 경제적 지위에서 조선족의 상대적 열세를 시사하는 것이다. 그 다음 각 지역의 민족별 거주 비중을 보면, 시구중 하남가와 광명가에

〈표 IV-7〉 훈춘시 각 행정단위별 민족 비율(1992)

민족 지역	계	조선족	한족	반족	기타민족
훈춘시	187,005(100)	85,407(45.6)	82,760(44.3)	18,174(9.7)	664(0.4)
정화가	31,779	14,042	14,477	3,040	220
신안가	26,571	15,309	9,515	1,645	102
하남가	14,890	2,416	11,918	453	103
광명가	15,223	1,212	13,690	275	46
춘화진	12,416	4,424	7,289	686	17
판석진	11,579	7,808	2,721	1,050	-
경신진	6,566	5,039	1,478	49	-
마천자향	9,256	6,766	1,398	1,083	9
양포향	4,481	1,914	1,123	1,433	11
삼가자향	9,846	4,071	3,068	2,674	33
영안향	9,844	4,944	3,895	938	67
밀강향	3,134	2,707	340	87	-
합달문향	8,506	3,785	2,270	2,436	15
마적달향	7,988	3,334	3,868	775	11
춘성향	14,926	7,636	5,710	1,550	30

자료: 珲春市 統計局, 1992, 「珲春市 國民經濟統計資料」.

는 한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조선족은 밀강, 경신, 마천자, 판석 등의 농촌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이 지역들 외에도 조선족은 농촌지역인 향·진 어디에나 일정 비율 이상을 점하며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조선족은 만주지방에 처음으로 벼농사를 보급한 수전농업에 능한 민족으로 알려져 왔는데, 지금까지도 상당수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을 이러한 통계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국가의 경제기반을 농업에서 공업 중심으로 이동시키고자 애쓰는 중국 사회의 경향이 뚜렷한 오늘날 변화에 대한 조선족의 빠른 적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며, 그 결과 자칫 후진적인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다. 한편 만족은 자신들의 자치향인 양포와 삼가자향에 그리고 합달문에서 높은 비중을 보인다.

4. 경제기반으로서 산업 및 자원

(1) 훈춘시 경제발달과정

훈춘지역은 천연자원의 부존량은 풍부하지만 러시아 및 북한과 접경이라는 전략적 위치와 외부와의 교통이 불편하다는 여건 때문에 최근까지 개발이 뒤진 변경지대로 남아 있었다.

동북 변경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은 19C 말 이후이다. 청이 이 지역에 대한 봉금정책을 완화하자 주변 각지로부터 이주민이 유입해왔다. 특히 조선족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북한지역의 주민들로 사회·정치적인 격동이 있거나 홍년이 들 때마다 두만강을 건너 대량으로 이주해 왔는데, 훈춘시 교외와 경신진 일대는 함경북도 은덕군, 새별군으로부터 온 이주자가 특히 많았다(심혜숙, 1993:29). 19C 말 청이 서보강(현재의 훈춘시 삼가자향)에 통상국을 설립하고 변경지방의 개간을 독려하자, 원래부터 벼농사 기술이 출중했던 조선족들은 灌溉가 가능한 두만강과 훈춘강 하곡의 충적지에 벼농사를 발달시키며 이 지역의 개척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정착과정에서 훈춘지역은 조선 및 러시아 지역과 쌀·소·말 등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교환하는 변경무역지로 자리잡아 갔다.

20C 초 한반도를 점령한 일제는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연길, 도문, 훈춘 등지에 영사관을 두고 막대한 양의 삼림, 광물자원과 농산물을 반출하였으며, 특히 통상 구의 하나였던 훈춘지역은 일본인 상공업자가 모여들어 상품거래의 거점이 되었다.

1931년 <9.18>사변 후 일제의 식민지 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수행되자, 훈춘을 포함한 동북지방은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원료공급지가 되었다. 이같은 지역정책에 따라 주요시설이 일본으로의 물자 수송이 용이한 장도철도 주변이나 두만강일대에 집중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공간배치에서도 심한 불균형을 나타났다.

1945년 이후 지난 40여년간 훈춘시의 경제발전은 경제정책과 사회변동에 따라 대략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발전도상의 연변편찬위원회, 1990:249-50).

첫번째 단계는 1945년 인민공화국의 창건 이후부터 문화대혁명 前까지로 초기에는 곡물생산을 위주로 하는 농업중심의 경제 형태였으나 '대약진'의 기간을 거치면서 삼림이

나 광물자원 및 지방특산물 가공업이 활발해졌다. 두번째 단계는 문화대혁명으로부터 1978년 당중앙 11기 3차 전원회의 이전 까지의 시기이다. 훈춘은 접경지대라는 이유로 전략상 방어기지로 책정되고 동시에 모든 형태의 경제투자는 중지되었다. 이에 따라 공업이 쇠퇴하고 고급 인력이 유출되어 지역 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었다. 세번째 단계는 당 중앙 11기 3차 전원회의 이후의 시기로, 당의 개혁 개방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1984년 9월 변경관리구에 대한 금지령이 취소되자 농업 생산량의 증대뿐 아니라 상품경제가 도입되었으며, 시 소속 공업부문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였다. 더욱이 1988년 길림성 인민정부가 훈춘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태평양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잇점 을 인정하여 훈춘을 경제 개발구로 지정함으로써 훈춘의 경제건설은 본격적인 도약단계에 접어 들었다.

(2) 자원의 분포와 개발

1) 농산자원의 분포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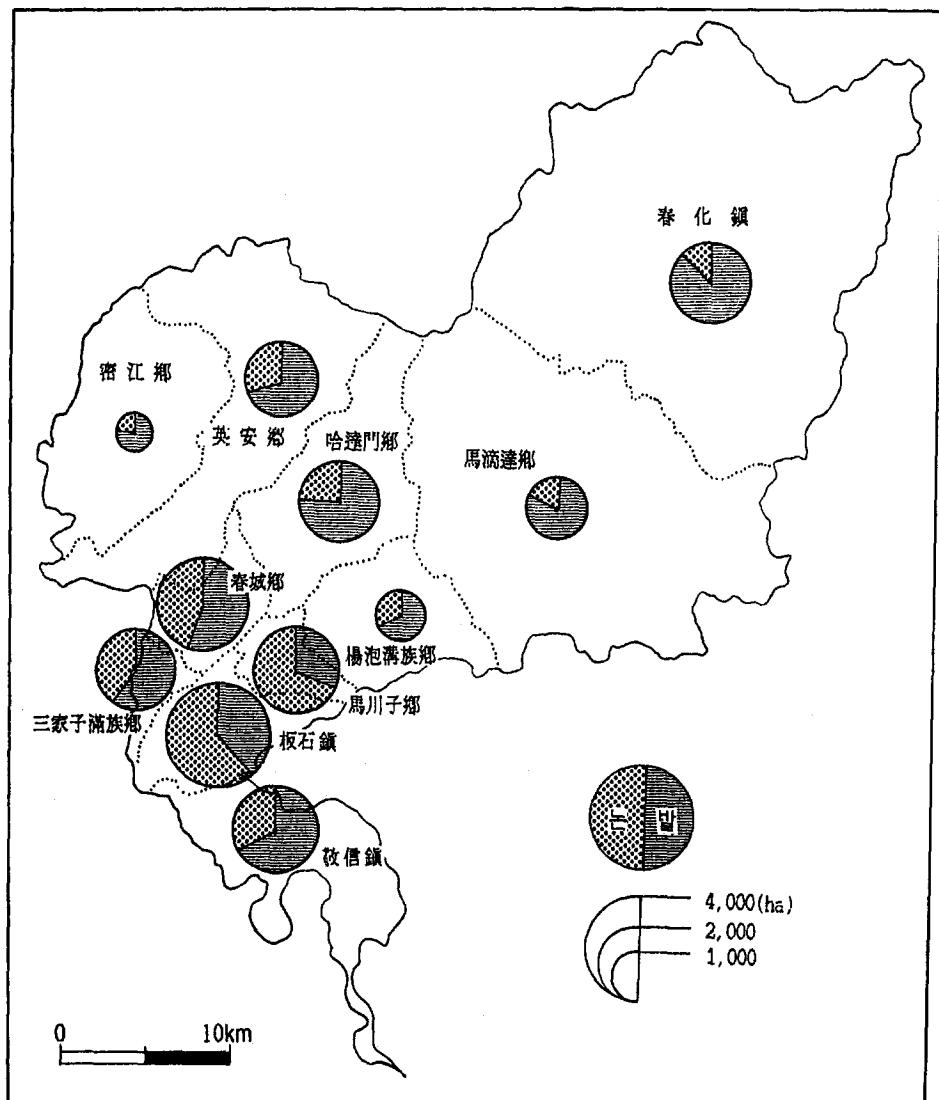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훈춘시는 하곡분지가 넓게 발달하고 관개에 어려움이 없어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두만강과 훈춘강 양안의 충적토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지는 해풍의 영향과 흥수로 인한 토양유실로 토질이 산성화 되었다. 뿐만 아니라 두만강 중상류지역의 공장에서 흘러든 철광석과 돌가루로 오염된 두만강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함에 따라, 토양의 비옥도가 낮아져 경작지에 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장삼환, 1993:98-103). 기후는 주변지역들에 비하여 온난습윤한 편으로 농업에 유리하고 여름의 서늘한 기온은 채소재배에도 적합하다. 그러나 심한 봄가뭄으로 농작물의 파종시기를 놓치거나 동해로부터 불어온 海風에 의한 冷害나 여름 태풍의 피해로 농작물을 수확이 감소되기도 한다. 한편 널리 분포한 사구의 모래가 탁월풍에 의해 이동 퇴적되어 두만강 하류지역 경지들의 토지 모래화 현상은 심각하다(임철호, 1992:127).

훈춘은 서남방향을 제외하면 산지로 둘러싸여 경지율이 7%에도 못 미치지만 전통적으로 농업을 중시해 온 까닭에 소택지나 경사지 개간사업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다른 지역과는 달리 60년대 중반까지도 경지면적이 늘어 났다. 그러나 인구증가에 따른 주거 지역 확대, 공장이나 광산 시설물의 증대, 신도로의 건설 등으로 최근 경작지 면적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건설붐으로 경지감소율이 현저해져 절대 경작지의 보존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절실히다.

1992년 현재 훈춘시 농경지 면적은 23,959ha로서, 넓은 평지는 주로 판석진과 경신·마천자·춘성 등 두만강과 훈춘강 하곡 주변에 분포한다. 논과 밭은 각각 9,707ha와 14,250ha로서 밭이 우세하나, 훈춘을 대표하는 농업은 오랜동안 조선족이 이루어 농은 벼농사이다. 대부분의 논은 경사가 완만하고 수리관개 조건이 유리한 해발 300m 이하 지역에 집중해 있으며 밭은 시의 동북부 춘화분지와 서북쪽의 밀강·영안의 해발 500m-600m 지역에 분포해 있다(<그림 IV-6> 참조).

농작물의 파종면적을 통하여 훈춘시 농업 생산구조의 특색을 살펴보면, 주곡 위주의 식량작물 재배가 탁월하다. 주요 농산물인 쌀, 옥수수, 콩의 재배가 전체 경작지의 85.1%

〈그림 IV-6〉 훈춘시의 논밭 비율(1992)



를 차지하는데 그 중 벼농사가 가장 성하여 총 재배 면적의 36.2%를 차지하며, 옥수수와 콩의 재배면적은 각각 20% 정도로 춘화, 삼가자, 판석, 합달문 지역에 널리 재배한다. 훈춘지역 농산물의 분포는 자연 재배조건 뿐만 아니라 민족의 거주분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벼와 조는 주로 조선족 거주지역에서, 옥수수나 수수는 漢族과 만족의 거주지역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

식량작물에 비해 경제작물이나 채소류의 재배는 80년대 초까지도 총 재배 면적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개방화 이후 농촌 경제가 시장 지향의 상품경제를 추구하게 되자 식부 면적이 점차 늘어나, 현재 경제작물과 채소류의 재배면적이 각각 8.7%, 6.2%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경제작물 역시 지역특화 경향을 보이는데 훈춘지역에서는 인삼과 약재, 밀강과 합달문 지역에는 연엽초, 삼가자와 합달문 지역에서는 사탕무우, 밀강과 경신에서는 훈춘의 특산물인 木耳버섯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훈춘市域에 인접한 춘성향과 마적달은 채소류 재배가 활발하여 균교농업지화되고 있다.

훈춘지역의 과수재배는 자급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수재배 면적은 990ha로 훈춘시 전체 면적의 0.3%에 못미치며 최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孟嶺, 涼水과원과 雙新에 만무 과원을 조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과일은 사과배, 잡배, 사과인데 연변 조선족이 개발한 품종인 사과배는 저장기간이 길어 과일 총 생산량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과수원은 영안·판석·춘성·합달문 지역의 해발고도 300-600m 내외의 구릉이나 두만강 하안의 단구변에 주로 분포한다.

한편 훈춘은 낮은 산지와 구릉이 널리 분포하고 목초 자원이 풍부하며 수계가 발달해用水구득이 용이하여 목축업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겨울이 춥고 길어 방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사료의 저장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草地는 천연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곳곳에 널려 있는 습지는 겨울에는 동결하고 여름에는 높으로 변하여 방목에 장애가 된다. 훈춘지역의 목축업이 침체되고 발전속도가 더딘 본질적인 이유는 이러한 자연조건보다는 전통적으로 가축사육을 경시해 온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한다. 그 결과 목축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거의 없고, 가축 사육을 단지 경작업의 부수적인 부문으로 간주하여 농가에서 자급적인 副業형태로 영위해 왔다. 따라서 축산업은 전문화되지 못하여 가축의 상품화율이 매우 낮다.

훈춘 지역의 대표적인 가축은 質이 우수하기로 평판이 나 있는 조선 황소이다. 논농사를 하는 조선족의 거주지역에서 주로 사육되는 황소는 농사용 역우나 육용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가축이다. 그 외 수송용 말은 滿族이 많이 사는 春化·삼가자·합달문 지역에서 사육율이 높고, 면양은 주로 집체사육을 하고, 山羊은 합달문 지역에 집중해 있으며, 염소 사육이나 양돈, 양계는 일반농가에서 부업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동안 훈춘의 농업은 곡물생산 위주의 전통적 構造와 영세적, 자급적 경영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상품경제가 활성화 된 이후 상업적 작물재배를 지향하고 소득향상에 따른 식생활 소비구조 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원화된 현대적 생산구조로의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훈춘이 변경 개방도시로 지정되고 두만강 금삼각지대의 개발이 가속화되면 인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각종 농산자원의 생산구조가 이 지역발전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가 요망된다.

2) 林·水產資源의 分布와 開發

장백산 식물계에 속하는 훈춘지역은 산지가 많고 각종 산림자원이 풍부하여 일찍부터 삼림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일제의 수탈로 산림이 크게 파괴되었고 해방후에는 경작

지 조성과 연료 사용을 위한 남벌로 천연림이 크게 훼손되었다. 현재 훈춘시의 총 임야 면적은 41.4만 ha로서 市전체의 83.9%가 산림으로 덮혀 목재축적량이 5,128만 m³에 달하여 목재가공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상업성이 있는 각종 야생 동·식물자원도 풍부하다(최심, 1993:71).

산림의 소유 형태는 83.8%가 國有林이고 집체림과 個人林이 각각 8.5%, 7.6%이며 평균 119.4 m³/ha의 축적량을 보유하는데 집체림(95.0 m³/ha)이나 개인림(85.1 m³/ha)에 비해 국유림의 단위당 축적율(129.6 m³/ha)이 높다.

훈춘의 산림은 주로 市의 北部山地에 동서에 걸쳐 帶狀으로 넓게 분포해 있는데, 산림분포는 지형조건에 따라 대략 3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북부 임업산지는 해발 500-1400m 지대로 침엽수와 침엽 활엽 혼성림을 이루며 피복율이 93%에 달하는 用材지구이다. 춘화·삼도포·대황구·해방·밀강 林場 등 주요 林業場들은 대부분 이 지구에 속한다. 중국, 러시아 국경변경구역인 國防林業區는 저산성구릉지를 이루며 피복율은 75%정도이다. 주요 樹種은 云松, 침엽 활엽 혼합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水土확보지 구인 두만강 하류와 훈춘강 유역의 평원지대와 하천 주변의 구릉지대는 삼림피복율이 35%에도 못미친다. 주요 樹種도 가득나무, 사시나무등 낙엽송과 활엽혼합림 관목이나 草本식물의 비중이 높아 목재 축적량이 26m³/ha에 지나지 않아 임업생산량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류충걸·심혜숙, 1993:285).

이와같이 산림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임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 대부분 용재림(86%)으로 樹林구성이 불합리하고, 둘째 전국이래 식수 조성사업을 계속해 왔으나 임산자원의 관리와 운영기술이 낙후하며, 셋째造林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삼림 피복율과 목재축적율이 점차 감소하는데 원인이 있다. 뿐만 아니라 조림지역은 시 동북부의 춘화진과 합달문, 서북부의 영안 지역에 있으나, 목재생산은 교통이 편리하고 외부와 접근이 용이한 마적달, 밀강 지역등 서북부 및 중부지역에 집중되어 임업 생산배치가 불합리하며, 수송기반시설의 미비로 조림지역과 목재가공지 간의 연계가 원활치 못하다. 따라서 목재 채취와 수송로 개발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훈춘의 수산자원 개발 역시 매우 낙후되어, 어획량도 적고, 어로장비나 기술도 미비하다. 예전부터 魚米之鄉으로 불리웠던 훈춘시는 19C중반까지도 연 어획량이 500톤에 달했으나 근년에 이르러 두만강하류와 훈춘하의 수질오염과 남획으로 年 40-50톤 정도의 생산에 머물며 대부분 자가소비에 그친다.

현재 어류자원은 11과 44종으로 그 중 잉어과가 20종, 연어과가 7종에 달하나, 두만강 중 상류지역의 공장들⁸로부터 홀려온 공업폐수와 농약, 생활오수의 유입으로 두만강 하류에서는 물고기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70년대부터 내수면 양식업에 힘써왔는데 두만강 하류지역(특히 경신지역)에는 자연호수인 하적호가 많이 발달해 있고 지형조건상 인공저수지의 축조가 용이하여 내수면 어업에 유리한 입지적 조

8 북한의 무산철광, 아오지 화학공장과 중국의 개산툰 펠프공장, 석현 종이공장, 훈춘하 상류의 금·동광 채굴 등

건을 갖추고 있다.

3) 광물 자원의 개발과 분포

훈춘은 풍부하고 다양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어 일찍부터 채광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해 왔다. 주요 광물은 중국 동북부지역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갈탄을 비롯하여 금, 동, 아연등 25종에 이른다.

① 석탄

석탄은 훈춘의 대표적인 광물이며 에너지원으로서 매장량이 약 12억 톤으로 추정되며 훈춘분지 460km²에 걸쳐 광범하게 분포해 있다. 훈춘 지역의 채탄 역사는 100여년에 이르나 초기에는 탄질이 낮고 매장지역의 교통이 불편하여 대량으로 채탄되지는 못하였고, 일제시대에는 주로 소형탄광들이 개발되어 민용연료로 이용되었다. 본격적인 탄광개발은 1970년 이후 시행된 지질탐사사업과 더불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탄전으로는 매장량 7.8억톤으로 추정된 훈춘 대탄전이 있으며, 그 외 양수, 금당, 석두, 춘화, 경신 등지에도 연 1만톤 이상을 채탄하는 탄광이 12호나 되며 이 밖에 소탄전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훈춘탄광은 年채탄량 100만톤이 넘는 길림성 최대의 석탄기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1978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중점개발된 이후 훈춘지역 경제발전에 기폭제가 되고 있다.

훈춘지역의 석탄은 대부분 갈탄으로 4,500-5,000kcal/kg정도의 열량 밖에 낼 수 없어 산업용보다는 발전용이나 가정용 연료로 적합하다. 이 지역 탄광은 대체로 지표 가까이 매장되어 있어 경사도가 작으며 탄층이 두터워 기계화 채탄에 유리하다. 그러나 국가에서 개발되는 훈춘탄광과 양수지역 탄광을 제외하면 향·진에서 경영하는 100여호와 개인이 경영하는 소형 탄광으로, 채탄시설이 빈약하여 원시적인 방법으로 채굴한다.

② 유색금속광

빈번한 화산활동을 겪은 신기화성함이 곳곳에 분포하여 금, 동, 연, 아연, 월프강, 니켈 등 유색 금속광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그림 VI-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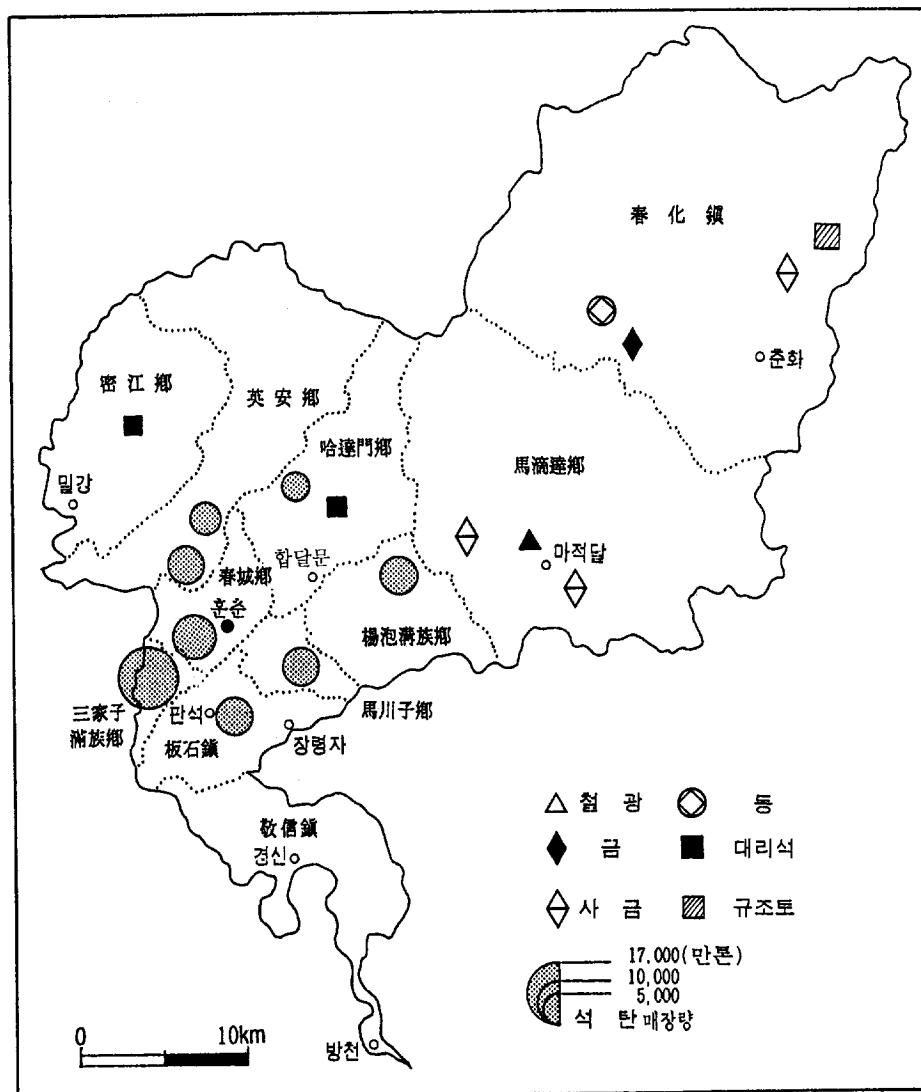
먼저, 훈춘은 연변최대의 사금생산지로서 추정매장량이 57.5톤에 이르며 생산량은 年 2만량 정도이다. 훈춘의 금광은 산금광과 사금광으로 구분되는데 산금광은 동부 마적달 지역에 집중해 있고 춘화 이북의 金泉崗 일대에도 소규모 광상이 있다. 사금광은 훈춘하중·하류의 토룡구지역과 탑자구지역 및 그 지류에서 볼 수 있으며 두만강 하구에 발달한 하곡충적지나 사구에서도 사금이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금광은 적은 투자로 금을 채취한다는 잇점은 있으나 수토유실이 심한 훈춘강 유역에서의 사금채취는 하곡지형을 파괴할 수 있다.

금과 함께 산출되는 동광은 춘화진의 小西南岔에 분포해 있는데 매장량이 12만 톤으로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 외 월프람광은 揚金溝·東溝지역에 매장되어 있고, 연·아연·니켈 등의 광상은 小西南岔로부터 農坪成礦帶 내에 대부분이 분포한다(류충걸·심혜숙, 1993:289). 철광은 유색금속광의 분포지역과 범위가 거의 일치하여 마적달의 白虎山에서 인동입자로 일대에 분포하며 매장량은 37.9만톤으로 추정되나 대부분이 품위 40% 이하인 빙광으로 알려져 있다.

③ 비금속 광물

훈춘의 대표적인 비금속 광물로는 도자기, 점토, 규석, 규조토, 진주석 등이 있다. 도자기 점토는 매장량이 180여 만톤에 이르며 질이 우수하다. 특히 양수 석두촌에는 양질의 점토가 매장되어 있어 일찍부터 도자기 제조공장이 있었다. 규조토는 춘화진의 草冒頂子에 분포하며 매장량 571만톤으로 추정된다. 훈춘지역에는 석재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림 IV-7〉 훈춘시 지하자원 분포 및 탄전의 매장량



그 매장량도 비교적 풍부한데 대리석은 함달문향의 河山, 영안향의 里化, 밀강향의 中崗子지역에 598만톤 정도 매장되어 있고, 그 밖에도 진주석, 수정, 규석등이 주로 마적 달향에 분포한다(류충걸 · 심혜숙, 1993:289).

(3) 산업과 고용구조

1) 산업 및 고용 구조의 특성

산업과 고용구조를 통하여 훈춘시 산업의 특색과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훈춘은 불과 수년전 까지도 전제 사회노동력의 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으며 현재도 농업종사자의 비율이 40%에 이르는 농업지역이다. 그러나 농업기술이 낙후하고 경영이 영세적 자급 적이어서 농업생산액은 훈춘시 국민총생산액의 20%에도 못미친다.

2차산업은 매장량이 풍부한 연료 및 광물자원과 삼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채탄 채광업과 목재채벌업 같은 자원채취를 중심으로 한 광공업이 주축이 되고 있으며, 생활용품과 소비품 같은 대부분의 경공업 제품은 매우 낮은 가공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개방화 이후 지난 수년간 광공업 생산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92년 현재 국민총생산액의

〈표 IV-8〉 훈춘시 산업구조 (1992년 국민생산액)

단위: 万圓, (%)

산 업 분 류	생 산 액	구 성 비
국 내 생 산 총 계	47,489	100.0
제 1차 산업	9,464	19.9
농업	9,464	(19.9)
제 2차 산업	20,874	43.9
광공업	12,884	(27.1)
건축업	7,990	(16.8)
제 3 차산업	17,151	36.2
교통, 운수, 우편업	1,324	(2.8)
상업, 음식업	7,706	(16.2)
금융, 보험업	2,815	
종합기술, 생산복무업	343	
거민 복무업	1,078	(10.5)
공용사업	144	
房地사업	589	
위생체육, 사회복지사업	460	
체육, 문예, 광전파사업	998	(3.1)
과학, 연구사업	-	
국가, 정당기관, 사회단체	1,198	
기타	496	(3.6)

자료: 훈춘시 국민경제 통계자료(1992), 훈춘시 통계국, p. 8.

27.1%에 이른다(〈표 IV-8〉 참조). 한편 경제개발구로의 지정과 더불어 주택, 건물, 도로, 철도, 공장 등 각종 시설물의 건설붐으로 건축업의 비중이 16.8%로 월등하게 나타난다.

훈춘시의 3차산업은 국민총생산액의 36.2%를 점하는데, 생산구조가 빈약할 뿐아니라 미분화 되어 있다. 그러나 개방화 이후 상업 및 서비스업의 성장이 팔목할 만하여 현재 국민총생산액의 16.2%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지역발전에 기초가 되는 교통 운수 우편업은 2.8%에 불과하며 그 외 금융보험 행정사무직은 10.5%, 교육문화 연구직은 3.1%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 산업구조를 비교해보면 먼저 시부는 광공업이 주축이 되고 그 외 건축업 상업, 서비스업이 고르게 발달한 반면, 향·진 지역은 생산성이 낮은 농업부문의 의존율이 높게 나타나고 지역범위가 넓기 때문에 운수·우전업의 생산액이 시부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표 IV-9〉 사회노동력 직업구성의 변화

단위: 인, (%)

산업구분	연도	1982	1988	1992		
				시 전체	성 시	향·진
총 계		76,792 (100)	95,819 (100)	110,790 (100)	64,932 (100)	45,858 (100)
농 업		48,637 (63.0)	45,238 (47.2)	43,110 (38.9)	1,079 (1.7)	42,031 (91.7)
광공업		14,638 (19.0)	24,831 (25.9)	41,949 (37.9)	40,893 (63.0)	1,056 (2.3)
건축업		1,402 (1.8)	6,818 (7.1)	3,894 (3.5)	3,431 (5.3)	463 (1.0)
교통·우전		1,444 (1.8)	1,388 (1.5)	2,625 (2.4)	2,045 (3.1)	580 (1.3)
운수업		3,740 (4.8)	4,011 (4.2)	8,421 (7.6)	7,897 (12.2)	524 (1.1)
상업,		6,930 (9.0)	13,533 (14.1)	10,791 (9.7)	9,587 (14.7)	1,204 (2.6)
서비스업						
행정사무원 및 기타						

자료: 延邊人口統計資料匯編(1990), 연변대학출판사, p.212.

훈춘시 국민경제통계 자료(1992), 훈춘시 통계국.

〈표 IV-9〉는 훈춘시 사회노동력 실태이다. 1992년 현재 훈춘의 사회노동력은 약 11만 명으로 전인구의 59.2%를 차지하는데 70년대末이래 每年 평균 4-6%씩 증가해 왔다. 지난 4년동안 훈춘시 고용구조의 변화를 보면 농업종사자는 감소한 반면, 광공업 종사자는 68.9%, 상업·서비스업 종사자는 100.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즉 80년대 중반

이후 개혁 개방정책의 실시로 광물자원이 적극 개발되고 상업과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개발구로의 지정과 더불어 경제기반시설인 교통·운수부문 종사자의 비율도 크게 높아졌다.

지역별 사회노동력 실태를 살펴보면 농촌지역 노동력의 91.7%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비해 농업생산액은 총생산액의 58.2%로 농업생산성이 매우 낮다. 이에 비해 성·진 등 시부 노동력은 63%가 광공업에 종사하며 최근 상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 광공업 구조의 특색

훈춘시의 공업부문은 최근까지도 연변자치주의 다른 시에 비하여 현저히 뒤져 있었다. 1988년 훈춘시의 공업생산액은 자치주 총생산액의 3.6%에 불과하나 공업기업소 수는 137개나 되어 기업경영구조가 매우 영세하다.⁹ 주요 공업은 탄광, 금광, 동광, 도자기, 제재, 제지, 농기계, 식료품 공업 등 주로 채취공업으로 자원소모형 공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80년대末 개혁 개방정책의 실시 이후 훈춘시의 공업생산은 연변 자치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는 개선된 기업관리 정책을 신속히 도입한 결과이다. 즉 훈춘의 변혁은 농촌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도시로 확장되고 있으며, 도시경제체제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국가 책임제로 부터 도급책임제와 임대책임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같은 경제개혁의 진행으로 경영권과 소유권이 분리되자 훈춘시 공업기업소들은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생산액과 판매소득이 급속히 증가하여, 1992년 현재 훈춘시 산업 총생산액 중 광공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43.9%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훈춘시의 공업은 매우 낙후하고 영세하다. 즉 제조업체수는 전체 기업의 1/3에 달하나, 공업생산액은 6.1%로 미미하다. 그뿐 아니라 구성면이나 경영면에서 불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다. 훈춘시 공업생산액과 기업수를 통하여 공업구조의 특성을 살펴보면(〈표 IV-10〉 참조), 첫째 훈춘시 소속하여 있는 공업 총생산액 중 경공업과 중공업의 비율이 16 대 84로 공업화 초기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중공업이 우세한 기형적인 양상을 보인다. 둘째로 대부분의 공업이 원재료를 1차적으로 가공처리하는 단순가공업으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가공공업이나 조립공업은 발달하지 못했다. 즉 대부분이 이 지역에 풍부한 광물자원을 이용한 채탄·채광·야금업 등 채굴공업과 원료공업이며, 경공업 역시 주로 자체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공업이다. 셋째 영세한 경영규모이다. 1992년 현재 총 140개의 기업중 96%(135개)가 소기업이고 공업생산액의 60%를 차지하는 중급 기업은 5개로 전체 기업수의 3.5%에 지나지 않는다(〈표 IV-11〉 참조). 현재 훈춘시역 내에 비교적 큰 기업은 길림성과 연변자치주에서 관리경영하는 광업개발이 위주이고, 市屬기업은 목재가공, 식료품 가공 및 기계공업 등을, 향진공업은 목재제품 가공, 건재공업을 주로 하는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며,

⁹ 연변자치수 각 시의 공업기업소 수와 공업생산액 비율(1988년)을 살펴보면 연길시는 259개소/ 29.3%, 도문시 138개소/ 11.7%, 돈화시 247개소/ 18.4%, 룽정시 174개소/ 14.0%로 나타났다.

〈표 IV-10〉 훈춘시의 공업구조

단위: 개, (%)

구 분 공업유형	기업단위 개(%)	공업생산액구성비 (%)
합 계	140(100)	100
경공업	69(49.0)	16.4
농산품 원료공업	52(75.4)	12.6
비농산품 원료공업	17(24.6)	3.8
중공업	71(51.0)	83.6
채굴공업	16(22.5)	33.4
원료공업	11(15.5)	45.1
제조공업	44(72.0)	5.0

자료: 훈춘시 국민경제통계자료(1992), 훈춘시 통계국, p.62.

〈표 IV-11〉 훈춘시 공업의 업종별 현황(1992)

구 분 업 종	기업수(개)	생산액(%)	생산액/기업수(万圓)
합 계	140	100	291
석 탄 채 굴 업	5	22.4	1,831
유 색 금 속 광 채굴업	7	11.1	645
건 재 및 비 금 속 채굴업	4	0.2	17
식 품 제 조 업	14	4.9	142
음 끓 제 조 업	8	1.5	78
봉 제 직 업	4	2.5	252
방 제 직 업	3	0.2	28
목 재 가 공 업	15	8.7	238
가 구 제 조 업	4	0.4	41
제 지 업	2	0.3	62
인 쇄 업	4	1.0	103
전 력 생 산 공 급 업	2	35.5	7,248
화 학 계 열 공 업	8	1.2	50
전재 및 비금속광제품업 제 철 업	24	4.3	73
금 속 제 업	1	0.1	47
기 계 공 업	10	2.3	92
	19	1.9	41

자료: 훈춘시 국민경제통계자료(1992)

대체적으로 市자체 수요에 대처하는 수준이다.

훈춘시에서 생산규모가 가장 크고 생산성이 높은 공업은 석탄자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공급업과 석탄 채굴업이며 다음은 유색금속광 채굴업이다. 이들 외의 공업들은 거의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성도 낮은데, 특히 건재관련공업과 방직업 가구제조업등은 영세하다.

최근에는 석탄을 이용한 전력생산도 활기를 띠워 영안화력발전소와 1987년 착공한 훈춘대형갱구화력발전소에서 발전량을 늘리고 있다.

비교적 개발역사가 오랜 야금공업은 일제시대부터 戰時공업 수요를 위해 춘화광업소, 마적달 채금소 등에서 발달해왔으며, 현재는 1977년 건설되어 연 65톤의 동을 생산하는 소서남차동광과 연 270kg을 생산하는 전민 기업소인 훈춘금광 외에 향기업소인 탑자구 금정 춘화금광 등에서 채금업이 발달해 있다.

한편 훈춘지역의 경공업은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하는 정미업이나 식용기름 가공업 및 양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 외에 공업으로는 양수의 일용도자기 공업, 연 천톤 이상을 생산하는 훈춘 종이공장과 농기계 제조공장들이 있다.

이와같이 자원채취와 단순가공이 대부분인 훈춘의 공업은 자원의 분포에 따라 대략 3개의 공업지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물자원이 풍부한 시의 동부지구인 춘화·마적달 등지는 채굴과 야금업 및 목재 가공업이 중심이 되고, 시의 서부 양수지역은 건재업, 광업과 가공업이 성하다.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중앙부에는 건재업, 화학공업, 전자공업, 식료품, 의류 등 각종 가공업이 집중되어 있다.

3) 상업 및 서비스업의 특색

중국 한족은 일찌기 상거래에 능한 민족으로 알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년 이상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정책을 고수해 온 까닭에, 상업이나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은 가장 미발달 미분화된 취약부문이다.

그러나 1978년 당 중앙 11기 3차 전원회의 이후 경제건설을 위한 상업의 개방 활성화 방침에 따라 상업체계에 변혁이 일어났다. 즉 지금까지의 국영상업중심의 경영구조를 조절하는 한편, 개체호에서 상업을 경영하는 민영요소를 늘이고 독립채산제와 손의자 부담의 자주적 경영을 채택하는 등 시장경제구조로 나아갔다. 더욱이 1985년 이후 상업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적극 추진하여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원칙화하고 분배관계를 조절하여 이윤을 세금화 하는 등 상업개혁을 계속한 결과 시장이 번영하고 유통이 활기를 띠며 업종도 다양해지는 등 상업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발전도상의 연변편찬위, 1990:135). 훈춘시 역시 최근까지도 상업활동이나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중국 전체 평균이나 연변자치구에 비해서는 상업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그 이유는 훈춘의 주산업이 동업과 자원채취 및 단순가공 위주이므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소비재 공급이 낙후하여 자체공급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현재 훈춘시 소재 상업시설물(상업망점)은 민족무역상점 농공무역상점 공급판매상점 경공업제품무역청사, 온실식 농산물시장 등 대소 100여 개에 이른다. 이들 중 시장은 총 27개로서 소비품 판매시장 4개소, 농수산물 판매시장 6개소 음식료품 시장 1개소, 생산원료 시장 4개소, 생산요소시장 2개소, 경공업 시장 10개소로 구성되어 그 중 23개소가

시내에 입지하는데 특히, 훈춘의 최대시장인 중앙시장은 상권이 매우 넓어 훈춘시구역 주민 뿐 아니라 북한·러시아인들도 이용하고 있다.

훈춘시 상업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경영형태별 상업기구의 비율을 보면(표 IV-12 참조), 1992년 현재 훈춘시 구역에 속하는 3,000여개의 상업기구 중 전민소유제나 집체 소유제 상점수는 21.9%이며, 개체유증상점수는 78.1%에 달한다.

(표 IV-12) 경영유형별 상업기구수(1992)

()구성비

구 분 경영 형태	상 업 기 구			총사인원	총사인원/상업기구
	전체시	성 시	향 진	전체시	전체시
총 계	3,002 (100.0)	1,860	1,142	10,986 (100.0)	3.7
전민소유제상업	122 (4.1)	106	16	2,699 (24.6)	22.1
집체소유제상업	536 (17.8)	398	138	3,910 (35.6)	7.3
합영상업	-	-	-	-	-
개체유증상업	2,344 (78.1)	1,356	988	4,377 (39.8)	1.9

자료: 훈춘시 국민경제통계자료(1992년), 훈춘시 통계국, pp. 140-41.

특히 시장경제 채택 후 자영업인 개체유증상업이 급속히 늘고 있는데, 이들 개체상인이 중심이 되는 시장교역은 상품유통기능이 완전치 못한 국영상업이나 집체상업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여 경공업품 일용품 및 농수산물의 원활한 매매를 촉진하며, 경영이나 관리면에서 시장경제를 택하여 그 효율성이 국영상업을 능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훈춘시 사회소비품의 소매현황을 통하여 유통특성을 살펴보면, 소매활동의 반이상이 개체상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판매되는 상품유형은 주로 생필품으로서 식품, 의약품, 일용품, 연료품의 소매액이 전체 판매액의 85%에 달하는 반면, 문화 교육 오락 용품의 판매는 매우 미미하다. 이점은 판매 상품 유형별 상점비율에서도 확인된다(〈표 IV-13〉 참조). 즉 식품류같은 생활 필수품 판매상점이 주종을 이룬 한편, 종합판매점 성격을 가진 백화상점, 종합성 상점들이 발달해 있어 판매업이 전문화·다양화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판매상점의 지역분포를 보면 생필품 상점은 인구에 비례하여 전시에 고르게 분포하나 전문상점은 시구역에만 집중해 있고 향촌지역에는 농업관련품 상점과 개체유증상인에 의한 소규모 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음식업과 서비스업 역시 개인 자영업인 개체유증상점이 가장 많다(〈표 IV-14〉 참조).

〈표 IV-13〉 판매상품별 소매상점현황(1992)

구 분 판매상품종류	상 점 수			총사업원 전 시
	전 시	시	현이하	
전 상 품	550	425	125	4,136
쌀, 기름	27	16	11	222
부 식 품	26	11	15	215
기타식품	40	40	-	320
섬유제품	3	3	-	15
백화상점	67	56	11	589
의 약 품	8	8	-	56
서 적	24	24	-	34
일용잡화	16	12	4	88
석 탄	3	3	-	18
석 유	5	5	-	50
철물(자전거, 전기)	30	30	-	247
농업생산자료품	14	3	11	88
기타 전문상점	90	90	-	846
종합성 상점	197	124	73	1,348
개체유증상점	2,344	1,356	988	4,377

자료: 혼춘시 국민경제통계자료(1992년), 혼춘시 통계국, p. 139.

전민 집체소유제나 합영상점은 주로 市部에 분포하고 縣이하의 촌에는 대부분 개체유증상점들이다.

〈표 IV-14〉 음식업 및 서비스업 현황(1992)

구 분	음 식 업		서비스업	
	상 점 수	총 업 원	상 점 수	총 업 원
전민소유제	3	50	17	94
집체소유제	54	504	57	490
합 영	1	33	-	-
개체유증	476	1,133	438	466
계	534	1,720	512	1,050

자료: 혼춘시 국민경제통계자료(1992년), 혼춘시 통계국, p. 142.

앞에서도 밝혔듯이 혼춘지역의 서비스업은 업종이 다양치 못하고(〈표 IV-15〉 참조) 시설이나 서비스 수준이 매우 뒤떨어져 있으며, 주요 업종도 여관업, 이발업, 일용품 수

리엄 정도로 미분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서비스업체는 城市지역에 집중해 있다.

〈표 IV-15〉 서서비스업의 구조(1992)

업 종	업체수(개)	종업원수(인)
여 관 업	112	360
이 발 업	186	254
목 욕 업	1	25
촬 영 업	21	50
일용품 수리업	99	131
기타 서비스업	93	230
합 계	512	1,050

자료: 혼춘시 국민경제통계자료(1992년), 혼춘시 통계국, p. 142.

4) 변경무역

훈춘의 변경무역은 오랜 역사를 가졌다. 1938년 장고봉 사건으로 두만강 출로가 차단되며 이전까지 훈춘은 연간 1,500-1,600척의 배가 드나드는 두만강 유역의 상업중심지였다. 물론 중국 정부의 변방정책이나 인접국과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받았지만, 변경이라는 입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북한 러시아 일본 등과 오랫동안 무역왕래를 가진 개방적인 통상구였다.

이들 인접국들과의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훈춘과 일본과의 통상은 밀해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일본에 사절을 파견했던 경로인, 지금의 장령자 어귀에서 포시에트 만과 동해를 거쳐 일본의 혼슈 중부 북해안의 후쿠이이시까와에 이르는 길을 「해상의 비단길」이라 불렀다. 1905년 「中·日 만주 협약」의 조인 후에는 일본인 상공업자들이 훈춘에 모여들어 농산물, 석탄, 금광, 목재등의 약탈적 거래가 행해졌으나, 두만강 출로가 막힌 후 대 일본과의 무역은 중단되었다.

훈춘과 러시아 간의 무역왕래 역시 오랜 역사를 가졌다. 1896년 중·러 조약 이후 본격화된 두 지역간의 무역은 주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에 조성된 시장에서 중국상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교역물들로는 해삼위로부터 옷감과 같은 생활용품이, 훈춘으로부터는 농산물이나 특산물이 반입되었다. 최초의 변경시장은 경신의 흑정자와 대두천에 조성되었으며 1923년 경에는 양포의 연통라즈, 마적달, 춘화의 반가요 등 3군데에 무역시장이 설립되어 주로 소, 말, 쌀 등이 거래되었다(발전도상의 연변편찬위, 1990:230).

현재 러시아와의 변경무역은 중공업이 발달한 핫산구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988년 연간 통과능력이 30만톤 되는 장령자 통상구가 설립된 후 교역물이 급속히 늘어 연간 10만톤 이상이 통관되고 있다. 두 지역간 주요 거래품은 러시아로 부터는 목재, 강재, 기계설비, 원목, 건설장비와 차량들이, 훈춘지역으로 부터는 농업생산품과 일상생활용품들의 제공되고 있다.

훈춘과 북한간의 무역 역사는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하여 매우 긴밀하였다. 이미 청조 때부터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함경북도와 지방무역이 성하였으며 1645년 경에는 훈춘에서 북한의 경원에 시장을 설치하기도 했다. 전국 후에는 훈춘시의 사타자를 개방하여 물자를 교환하고 있는데 최근 교역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연 20만톤이 사타자 통상구를 통과하고 있다. 북한으로 부터의 수입물자는 魚類 · 목재 · 강재 · 시멘트 · 수산물 등이며, 중국으로 부터의 수출물자는 옥수수 · 콩 · 사료 · 유통 등 식료품과 기계 · 전기제품 · 유리제품 · 불도우저 · 휴대용 동력 및 운동복 · 내의 등 품목이 다양하다. 한편 북한과의 교역에서는 친척방문 형식의 민간무역 (보따리 장사)도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이와같이 두만강 유역의 변경무역은 대부분 구상무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교통 및 통신시설과 같은 기반시설 미비와 정보의 부족등으로 아직 교역환경이 체계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環東海經濟圈의 거점화를 시도하면서 최근 변경무역 거래액은 급 속히 늘어, 1993년 14억원에 달하고, 통상구 국경출입인원은 연 79천여명이며, 수출입 화물은 12만 5천톤에 달하여,¹⁰ 이에 대한 대책도 활발히 진행중인 바, 기존의 對 러시아 통상구인 장령자 해관과 對 북한 통상구인 사타자 해관까지의 도로들이 확장 정비 되었으며 그외에 국경접경지 4곳에 변경무역 중심지를 보강할 계획이다. 즉 1982년 以前까지 사용되었던 敬信峯 圈河지역 철교의 재개통, 6.25 전쟁때 폭격으로 유실된 훈춘의 솔만자村과 북한의 訓戒間 철도 연결계획 및 블라디보스토크와 직선거리 55km에 이르는 러시아쪽의 分水嶺 口岸개발이 계획 중이다. 또한 두만강 河口에서 내륙쪽으로 15km 거리에 있는 三國의 접경지인 防川에 항구를 개발하여 북한 · 러시아 뿐만 아니라 한국 · 일본과의 경제연계를 위한 통로를 만들어 변경무역의 큰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5) 관광산업

두만강 하류지역은 강 주변지역에 관광 및 레저개발이 가능한 아름다운 경관들이 있다. 현재 훈춘시의 관광산업은 중국의 개방정책과 더불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훈춘의 관광자원으로는 오랜 문화역사 유적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들 수 있다. 먼저 역사유적을 살펴보면 팔련성 유적을 들 수 있다. 팔련성 유적은 훈춘시내에서 서쪽으로 6km 떨어진 훈춘하의 충적평야 지역에 있다. 팔련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되어있는데 외성둘레의 길이는 2,890km이다. 역사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팔련성은 발해의 동경용원부의 소재지로서 발해의 제3대 국왕 대홍무가 대홍 48년(기원 784년)에 수도를 여기로 옮겼다가 대홍 57년(기원 798년)까지 통치했다고 한다. 또한 방천에서 약 5.1km 동쪽으로 내려가면 「土」字 경계비가 있다. 이 비는 1886년 청나라에서 파견한 관리가 러시아측 대표와 협상한 결과 국경선을 상정하는 「土」자 경계비를 세웠다. 과거 국경수비 문제로 인하여 미개방구로 있었으나 지금은 개방하여 수 많은 국내외의 관광객의 주요 관광명소로 바뀌었다.

특히 자연경관이 수려한 방천지역은 훈춘시 남쪽 약 17km 떨어진 두만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에는 1938년 러시아와 일본군대가 싸운 張鼓峰(155m)이 있고, 남쪽

¹⁰ 1994년 1월 13일 훈춘시 제13기 인민대표자대회 제3차회의, 「정부사업보고」, p.3

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하천양안에는 바람에 의하여 퇴적된 사구가 넓게 발달해 있다. 방천은 연변자치주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낮은 곳으로 중국·북한·러시아 3국이 접하고 있는데 남쪽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고, 동쪽과 북쪽은 작은 구릉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다. 방천에서 「土」자 경계비로 가는 도중에 간이부두가 있다. 이 곳에서 두만강 선유를 할 수 있는데 두만강의 하폭은 100m이고 수심은 3-4m정도가 되기 때문에 하상에서 3국의 땅을 볼 수 있다. 유람선을 타고 동쪽으로 가면 러시아 철교와 북한철교를 상세히 볼 수 있으며 남으로 나가면 북한의 취락 및 자연경관을 가까운 곳에서 육안으로 직접 보게 된다.

훈춘은 북한·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변경지역으로 국경을 통한 중국인 뿐만 아니라 북한·러시아의 왕래객이 많으며, 특히 훈춘시 경제개발에 따른 투자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일본을 비롯한 외국인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표 IV-16〉 참조).

〈표 IV-16〉 훈춘의 외국인 방문 현황(1985-1988)

연도	국가		한국		일본		소련		싱가폴		홍콩		캐나다		미국		대만	
	방문 단체	방문 인수																
1985	14	77	4	65														
1986	12	67	3	38														
1987	11	50	6	100			2	4	2	6	1	2				1	1	1
1988	10	50	9	39	7	40	1	1					1	1				
계	49	244	22	242	7	40	3	5	2	6	1	2	1	1	1	1	1	1

자료: 張巨昌, 1989, “旅遊資源分析評價,” 「琿春經濟開發總體規劃」, 琿春經濟開發區總體規劃辦公室, p. 113.

그러나 관광개발의 문제점으로는 겨울의 혹한과 국경지역으로 인한 자유로운 왕래가 힘들다는 점이며, 교통망이 잘 발달되지 못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겨울철 두만강의 결빙과 군사상 통제는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활용에 커다란 난점으로 대두되며 효율적인 교통망의 구축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국가간의 협약을 통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며 방문객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야 한다. 한편 훈춘에서 약200km 떨어진 백두산의 홀륭한 자원과 연계된 광역적 관광개발이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선결과 제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망의 구축과 해상교통을 통한 관광객의 왕래가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훈춘시에는 숙식시설의 보강이 절실히 요구되며 국경을 초월한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과 상호 연계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연계망으로서 교통과 통신체계

(1) 훈춘의 구교통¹¹

1) 고대의 훈춘시 교통: 기원전-청조의 봉금

고대 역사문헌에 의하면 훈춘시가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역은 기원전 시기부터 명나라 시기까지 예맥, 북옥저, 고구려, 말갈, 거란, 여진등의 민족들이 활동을 했지만, 각 민족의 통치 중심부에서 볼때 변강지역에 불과 했기 때문에 거주민도 적고 교통망도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또한 협준한 지형의 영향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발해때(기원 698-926) 「日本道」는 中·日 두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교류를 하는데 이용한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었다. 「日本道」의 육로는 전·후 두시기로 나누어졌는데 이 두 갈래의 길은 모두 동경용원부(東京龍原府)¹²를 지나 항구까지 이르는 길로서, 당시의 통행로의 대부분은 고대 민족들이 활동하면서 생긴 天然活動路와 驛道를 토대로 하여 통로가 만들어 졌다. 이후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때 이 지역에 성을 축조하여 옛 성과 새 성지간의 통로를 닦았다. 또한 도문강, 훈춘강, 가야강, 부르하통하 등을 이용한 원시적인 하운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청조때는 조상의 발상지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이 지역에 200년동안 封禁을 실시하여 사람의 소통을 막았다. 따라서 연변지역은 물론 훈춘지역의 교통망은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2) 근대의 훈춘시 교통: 봉금해제이후-해방전

훈춘의 근대 교통은 청조의 봉금이 해제된 이후 일제의 침략과 식민활동으로 점차 발전되었다. 1895년 봉금의 해제로 이 지역에 漢族이 대규모로 이주했으며 따라서 清朝정부에서도 변강이 개방됨에 따라 변방을 강화할 필요때문에 교통로를 조성하게 되었다. 청나라 말기에 驛前도 세워졌다.

훈춘시의 이 당시 수로와 부두시설은 清朝 광서 15년(1889년)에 두만강 수사영(水師營)을 설치하여 여름에 두만강 상류를 순찰하고 겨울에는 훈춘 서보강(西步江)에 주둔하고 있었다. 수사영은 3판선 한척과 4판선 2척, 그리고 가결사포 1대를 갖추고 있었다. 훈춘 경내에 도선장 부두가 양수(涼水), 경영, 하서(河西), 팔연성(八連城), 서보강 등에 있었다. 한편 훈춘하의 물을 이용하여 뗏목과 뜶배를 몰아 목재와 화물을 수송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연변조선족 자치주지역에 두갈레의 철도가 일제에 의해 부설되고 간선도로는 모래자갈을 이용한 포장도로가 건설되었다. 일제가 훈춘지역의 자원의 수탈과 러시아를 침략하려는 목적으로 두갈레의 철도가 건설되었다. 그 중 하나는 1939년에 완공된 조선의 훈용으로부터 훈춘경내의 영안, 훈춘을 지나 러시아 변경의 마적달에 이르는 훈춘철도이다. 침략의 일환으로 단기간에 부설된 철도이기 때문에 철도의 상태는 양호하지 못했다. 이 철도는 해방 후(1945년) 러시아에 의해 철거되었다. 훈춘지

¹¹ 훈춘시의 구 교통에 대해서는 크게 3시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한다. 고대, 근대, 해방후로 나누는데(전송립, 1991) 커다란 역사적 변혁을 토대로 시기를 구분한 것이다.

¹² 현재의 훈춘시 八連城지역.

역의 도로건설은 1934년부터 1937년에 이르는 기간에 활발하게 건설되었다. 도문에서 훈춘간의 도로가 새롭게 보수되었으며, 훈춘에서 동녕, 훈춘에서 흑정자, 훈춘에서 사타자 구간의 도로가 새롭게 건설되었다. 해방전 훈춘시를 포함한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교통상황은 철도가 근간이 되고 도로가 부차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도로교통에 있어서는 운송수단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당시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3) 해방후의 훈춘시 교통: 1945년 이후-

해방직후의 교통은 戰禍로 인해 파괴된 철도 및 도로의 복구로 부터 시작되었으며, 공화국의 건국후 중국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수요에 따라 교통시설의 확충이 요구되었다. 철도에서는 일제시대때 부설된 철노선의 개조와 역참및 교각, 터널등 부대시설의 補修·改良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도로교통에 있어서도 ‘먼저 量을 늘이고 후에 質을 높이자’의 방침으로 기존도로의 改·補修와 많은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였다.

해방후 훈춘지역의 도로의 상황은 도로의 총 길이에서 뿐만 아니라 도로의 질적 수준에서도 많이 향상되었다. 또한 훈춘시가에서 멀리떨어진 鄉·鎮으로 통하는 간선도로의 수축과 각 향·진간의 연계도로망도 건설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도문-훈춘간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의 2급도로로 확장되었으며, 훈춘-방천간 간선도로도 건설되었다. 훈춘시의 철도는 해방후 철거된 채 있었지만 최근 경제특구 지정이후 부설공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長峯子를 통해서 러시아의 크拉斯키노로 연결되는 철도가 공사중에 있다.

(2) 現在의 交通現況 및 通信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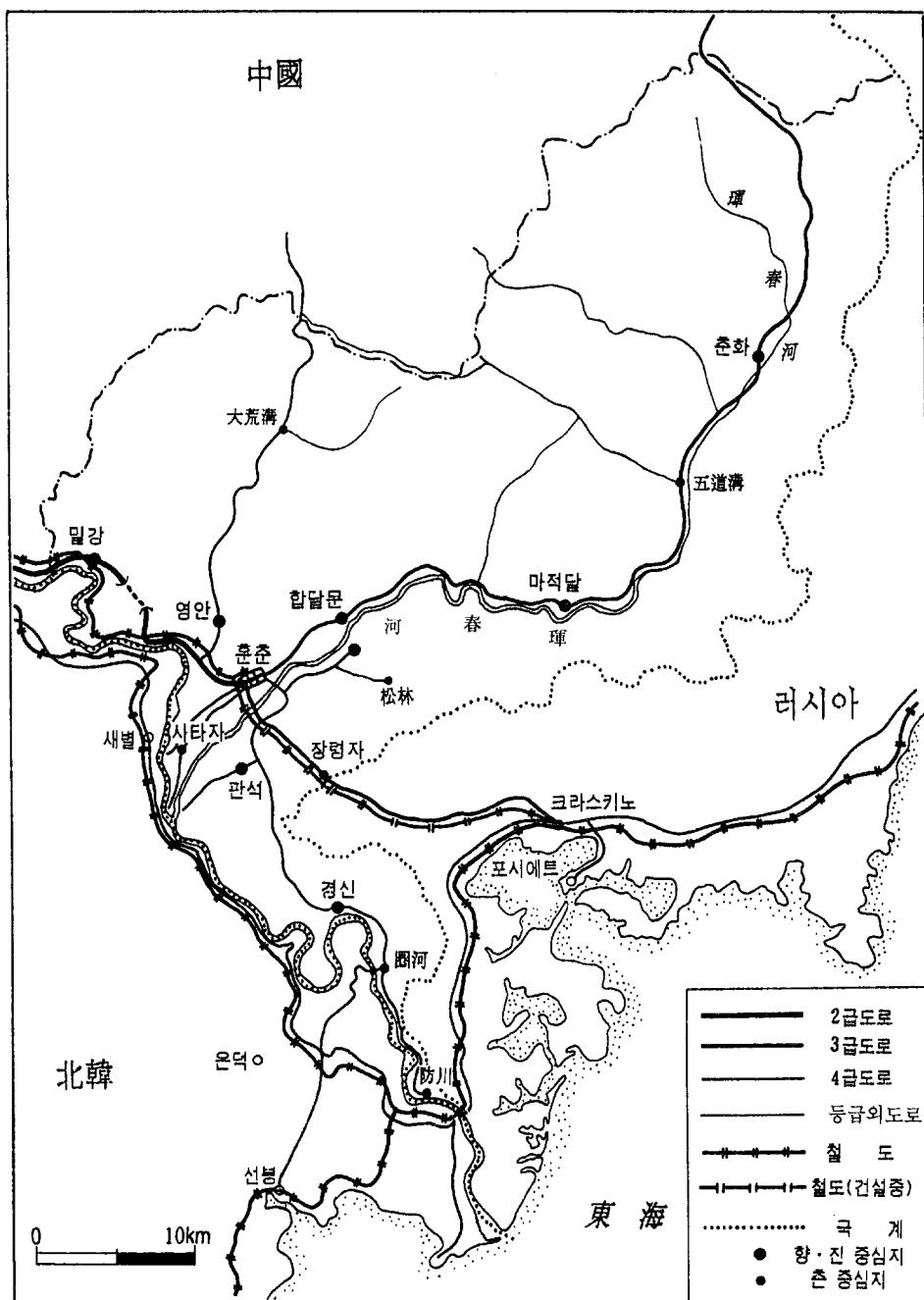
1) 현재의 도로망

훈춘은 국경선 가까이 위치하여 도로교통이 위주가 되었지만 과거 도문에서 훈춘까지 구간은 산지를 경유해야하기 때문에 교통상황은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도로운수 상황으로 훈춘은 비교적 폐쇄된 상황이었다. 현재의 훈춘시 도로망은 두만강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확장 및 改·補修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중국의 대외개방 경제개발구로서 외국기업자본과 기술의 유치 및 해외기업 활동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다. 93년 말 현재 훈춘시 도로의 총 길이는 438.5km이다. 이 중 2급도로(폭 12m 이하)는 52.9km, 3급도로(폭 9m 이하)는 12km, 4급 도로(폭 6m 이하)는 306.2km이며, 나머지 67.4km는 등급 외 도로이다. 도로망의 밀도는 100km^2 당 8.17km 로서, 중국 평균인 9.4km^2 보다 낮고, 길립성의 평균 12.9km^2 보다도 훨씬 낮다(길립교통통계, 1992; 유충걸·심혜숙, 1993:295). 훈춘시에서 각 鄉 또는 鎮으로 통하는 도로는 총 18곳이며 이중 포장도로가 3곳 그리고 나머지는 沙石路이다. 그리고 훈춘시에서 村과 연계된 도로는 모두 126곳이며 105곳이 개통되어 있으며 이 중 11곳이 포장도로이고 74곳은 沙石路, 20곳이 土路이다.

2) 북한 및 러시아 간 연계 도로망

훈춘시는 북한 및 러시아와 接境地域으로 오래 전부터 이들 국가로 통행할 수 있는 교통로가 건설되어 있었다. 현재 두만강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가간 교류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간 連繫網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교통망에 대

〈그림 IV-8〉 두만강 하류지역의 교통망



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도로망을 통한 국가간 연계는 기존도로의 확장 및 改·補修 공사가 시행되었거나 계획중에 있다(<그림 VI-8> 참조).

① 훈춘-북한 간 도로

훈춘시와 북한은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훈춘시에서 북한과의 통행은 두만강을 건너야 한다. 현재 훈춘시와 북한사이에 건설되어 있는 橋梁은 솔만자(쉐이완쯔)-새별郡(舊慶源郡), 사타자(沙塔子)-새별郡, 圈河-恩德郡(舊慶興郡) 등 모두 3군데이다. 솔만자-恩德郡을 잇는 橋梁은 橋梁 중앙이 끊어져 있어 통행을 위해서는 보수가 필요하다. 사타자, 圈河의 越境地域의 橋梁에 이르는 접근로는 폭 6m의 비포장 도로로 오래동안 사용되지 않았으나 훈춘시 사타자 口岸과 북한의 새별郡間의 통행은 1992년에 정식으로 개통되어 시구역에서 11km에 달하는 이 구간의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은덕군으로 통하는 권하에 이르는 구간도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개통될 예정에 있다. 한편 1939년 북한의 舊慶源郡 훈용(訓戎)으로부터 훈춘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철도는 해방과 더불어 철거되어 솔만자에서 북한과 연결된 철도교량은 철도레일이 없어지고 橋脚만 남아 있다.

② 훈춘-러시아 간 도로

훈춘시에서 러시아로 통행할 수 있는 접근로는 하나이다. 훈춘시 동쪽에 위치한 長峯子를 통해 러시아의 크拉斯키노와 포시에트港 까지 연결되는 구간으로 시구역에서 長峯子까지의 거리는 14km이다. 폭 6m의 비포장도로였던 것을 1993년에 폭 9m(3급도로)의 콘크리트 도로로 鋪裝 및 擴張工事を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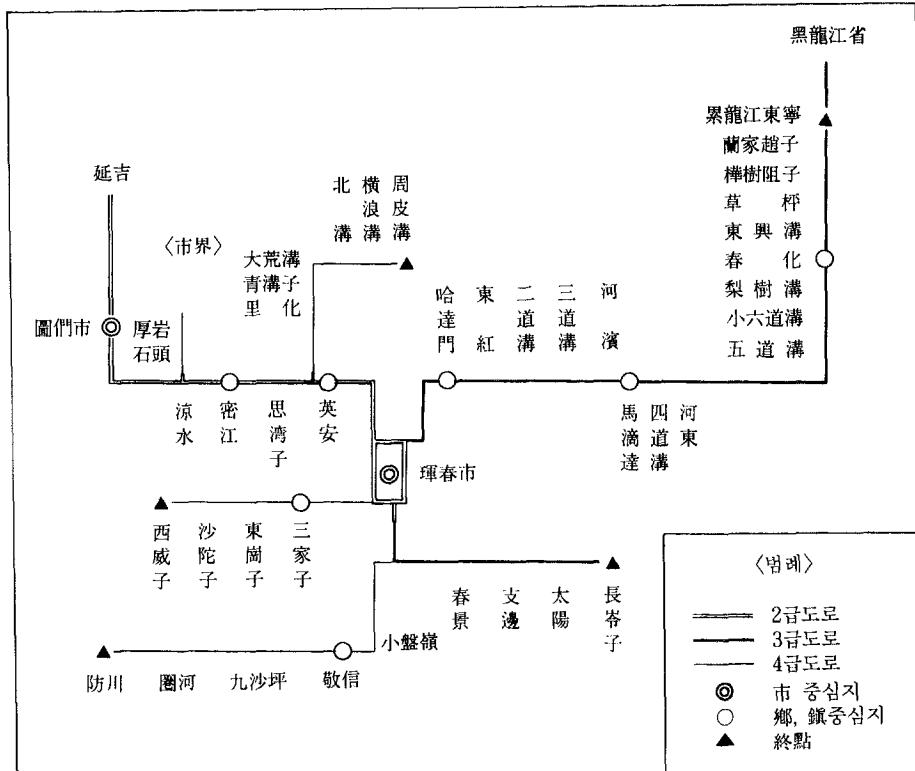
3) 훈춘시의 교통량

훈춘시의 교통량은 경제개발 계획으로 인한 人的·物的 資源의 이동과 건축붐 및 社會間接資本의 확충에 따라 급증하는 추세이다(<표 IV-17> 참조). 훈춘-도문간 도로는 훈춘에서 중국내륙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이 구간은 교통량은 훈춘과 내륙간의 연계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현재 이 구간은 연변조선족 자치주내에서 여객 및 화물의 수송량이 가장 많은 도로이다. 훈춘에서 對外로 搬出하는 화물은 石炭, 木材, 穀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搬入되는 물품은 農機械, 採礦機械, 肥料 및 農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에 건축재료, 강철, 생필품, 무역품의 운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변경개발구지정으로 인한 개발붐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운행차량은 트럭과 버스이다¹³. 여객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교통수단의 미비로 버스가 여객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훈춘 동부와 동북부 변경지역을 연결하는 훈춘-신개지

13 참고로 1994년 1월 26일 오후 1시간(12:00-13:00) 정도 도문-훈춘 구간의 통행량을 살펴보면, 트럭이 60대, 중·소형버스 13대, 자가용 15대, 택시 8대, 경운기 10대가 훈춘에서 도문으로 운행되었다. 트럭은 대부분 목재를 운반하고 있었다. 또한 다음날 오전에 훈춘에서 경신에 이르는 구간을 한시간 정도 조사한 통행량은 트럭 10대, 버스 4대, 택시 3대, Jeep차 2대, 경운기 4대, 우마차 5대 등을 보이고 있다. 소형트럭과 경운기는 대부분이 판석에서 채굴되는 석탄을 운반하는 차량이었다.

도로는 이 지역의 인구밀도가 작고 경제수준이 낮기 때문에 여객 및 화물의 유동이 훈춘-도문간 도로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이 도로의 주요 운송물품은 목재이다. 또한 도로교통량은 이지역 버스도로망을 파악하면 알 수 있다(〈그림 IV-9〉 참조). 이 버스망도는 1994년 2월 운행되고 있는 현황이다.

〈그림 IV-9〉 훈춘시 버스노선망



4) 도로 상황

훈춘시는 市街地 및 瑾春·圖們, 瑀春·長峯子, 瑀春·春化鎮·黑龍江省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포장도로이다. 연변 조선족자치주내에서 가장 운송량이 많은 훈춘-도문간 도로는 폭 12m의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지만 그 밖에 鄉·鎮을 이루는 간선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폭이 6m이하로 매우 좁은 중국에서 4급이하에 해당하는 도로이다. 현재 두만강 개발계획으로 인한 러시아나 북한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확장 및 포장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훈춘시구역에서 장영자를 거쳐 러시아로 통하는 도로는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북한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

히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방천에 이르는 구간은 혼춘시역에서 경신까지 9m폭으로 확장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경신에서 방천까지의 구간은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경신에서 방천까지의 구간은 두만강 하안을 따라 건설되어 있으며 양관평(羊館坪) 구간의 도로¹⁴는 사행(meander)하는 두만강 하상위에 둑을 쌓아 도로를 건설했기 때문에 두만강의 범람으로 인한流失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표 IV-17〉 혼춘시 교통현황

구 분	연 도	1978	1988	1992
화물운송 차량(대수)	136	303	1,127	
여객운송 차량(대수)	74	260	460	
총 운송 화물량(만톤)	80	160	130	
화물운송 周轉量(만톤km)	-	4,844	5,804	
여객 輸送量(만인)	-	202	211	
여객운송 周轉量(만인km)	-	7,933	8,924	

자료: 혼춘시 국민경제 통계자료(1992).

5) 통신시설현황

훈춘시의 통신시설은 아직은 落後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혼춘시의 電話 保有量은 1992년에 총 6601대가 설치 되어 인구 만명당 35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연변자치주내에서 연길시(819대), 용정시(427대), 도문시(400대) 다음으로 보유하고 있다

〈표 IV-18〉 연변자치주 각시의 전화보유 및 우편업무 현황(1992)

구 분	총 전화기 보유량 (대)	만명 당 전화 보유대수 (대)	총 우편 취급액 (万圓)	1 인당 우편 이용액 (圓)
훈춘시	6,601	353	787	68.3
연길시	25,758	819	5,561	189.5
도문시	5,581	400	693	49.9
돈화시	12,848	274	1,114	23.7
용정시	11,789	427	1,104	38.5

자료: 연길통계연감, 1993:290-93

¹⁴ 1984년 이도로를 건설하기 이전까지는 중국영토내의 도로가 두만강의 범람으로 유실되어 러시아 지역의 우회도로를 거쳐 방천에 이를 수 있었다.

(〈표 IV-18〉 참조). 우편 현황은 총우편취급액의 경우 연변 자치주내의 각 시와 비교해 볼 때 취급액수가 많지 않지만 인구대비(1인당 환산)의 이용액을 비교해 보면 연길시 다음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3) 交通網의 計劃分野

중국의 對外 開放政策으로 인하여 활발한 국제교역이 이루어지고, 많은 해외 투자 기업들이 중국내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들 투자를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적, 물적 자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나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擴充이다. 훈춘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훈춘시는 두만강을 통한 해상항로의 개발과 북한, 러시아와의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한 많은 사업이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다. 각 교통수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로교통

훈춘시에는 항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북한이나 러시아 항구를 빌어 써야 한다. 북한에서 개방된 항구중 편리한 항구는 훈춘에서 93km 떨어진 나진, 선봉항구로서 북한 정부는 이들 항구에 중국 수출입화물의 출입을 허용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도 연간 화물 통과량이 50만톤 되는 자루비노 항구를 공동 건설하고 공동 이용할 것을 동의했다. 따라서 훈춘-나진간 연계 도로망중 훈춘에서 사타자를 거쳐 북한의 새별군(구 경원군)을 잇는 교통로와 훈춘에서 권하를 경유해 북한의 은덕에 이르는 구간의 육상교통로가 확장 개통될 예정이다. 훈춘-자루비노 간의 고속도로와 훈춘-나진 2급도로도 개통될 예정이다. 그리고 훈춘에서 중국 내륙으로 연결되는 도문-훈춘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가 완결되었으며, 연길에서 훈춘에 이르는 신 고속도로의 건설에 관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연변조선족자치주 교통국, 1992).

2) 철도교통

도문-훈춘간 철도가 93년 9월 28일 개통되었지만 驛舎건설 및 신호시설의 미비로 화물수송만 이루어지고 있다. 도문에서 훈춘간 철도의 중간 起着역으로는 涼水, 密江, 英安에 역사가 건축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철도는 러시아의 그라스키노를 지나 포시에트, 더나아가 블라디보스톡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또한 훈춘시의 여객 정거장인 北驛의 시공을 끝냈고, 러시아·몽고·북한·국내선로 등 12개가 들어서는 西驛의 시공을 차수했으며 합작구 통과량이 6만톤되는 훈춘 東驛도 건설할 계획이다.

3) 해상교통

중국 입장에서 두만강 하류개발은 중국화물이 동해를 통해 해외로 운송될 뿐만 아니라 세계각국과의 교류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두만강 개발계획과 관련 중국은 당초 두만강하구 15km를 준설해 훈춘시 방천항을 연안내륙항으로 개발하려는 안을 갖고 있었으나 최소한 5천t급 선박의 항해와 3백만 - 1천만t 화물처리 능력을 가지려면 엄청난 준설비용과 환경파괴가 우려되는데다 북한, 러시아와의 협의도 쉽지 않은 만큼 지금으로선 대규모 항만건설 계획은 보류되어 있다.

중국은 이처럼 두만강을 통한 동해진출이 늦어지자 북한·러시아항구를 이용하는 쪽

으로 눈을 들리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 자루비노항 화장공사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훈춘-장영자-크拉斯키노-자루비노를 잇는 출해가 가능해진다. 이미 합의된 한국의 속초항과 자루비노 항간 여객운항은 인천-위해, 인천-천진에 이은 한·중간 세번째 해상통로가 될 것이며, 중국-러시아는 중국측 자루비노항 이용과 함께 연간 50만t 규모의 창고를 공동건설해 사용키로 합의한 상태다. 또 중국은 연길 선호기업집단(그룹)의 북한 청진동항 사용권(50년)획득에 따라 연길-용정-삼합-회령-청진 구간을 이미 활용하기 시작했다.

4) 항공교통

일제시대에 훈춘시가지와 사타자 중간에 훈춘비행장이 건설되었지만 지금은 폐쇄되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비행장의 부속 건물이나 시설물은 50년대 말 大躍進 운동이후 철거되었으며, 民家의 가옥재료로도 사용되어 현재까지 남아있는 비행장의 흔적은 거의없다. 한편, 훈춘 정부는 여객 및 화물의 운송에 항공 교통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훈춘 동남부(경신평원 길이 5km, 폭 2km)에 국제 비행장 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있다.

전반적으로 훈춘의 지역 특색을 종합하여 보면 두만강 하류와 훈춘강 유역에 형성된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일본과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하였으며, 20세기에 와서는 강대국간의 분쟁지역으로 등장하여 늘 군사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리적으로는 삼국의 경계지역으로서 조선족 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과 석탄 채굴을 중심으로 경제기반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 도시공업이 진출하여 새로 운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있다. 하천유역의 넓고 낮은 지역은 벌집 잡재지역이며 양안에 사구가 발달하여 특수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하천 계곡을 따라 드나드는 바람은 작물재배와 경지이용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지역과의 연계는 러시아 및 북한과 도로 교통이 주요 수단이며 훈춘까지는 내륙철도가 이제 막 건설되었다.

전 지역이 100m 이상의 산악과 삼림으로 덮혀 있으며 일부 하천 유역의 낮은 저지대가 경제활동의 무대가 되고 있다. 논과 밭의 분포는 고도에 따라 배열되고 있으며 훈춘시가지를 제외한 촌락은 대체적으로 규모와 분포가 지역단위와 일치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석탄 매장과 채탄업이 주요 경제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이 관련공업이 발달하고 있다. 지역구조의 공간적 특색은 하천이 중앙에 그리고 그 중심에 훈춘시가 있으며 주변이 벼농사 지역 그리고 밭농사와 촌락, 과수원, 삼림으로 배열된 특색을 갖고 있으며 석탄산업 관련 시설이 분산되어 있다. 인구규모로는 아직 20만이 넘지 않는 소도시로 성장하였지만 지리적으로 변경에 위치하여 발전 잠재력이 대체로 높은 곳이다. 특히 풍부한 1차 자원의 활용, 인구유입 및 수용을 통한 활용가능성, 풍부한 수자원, 해외 진출을 위한 유리한 연안 입지 등이 앞으로 발전의 근간을 이룰 수도 있는 특색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한국에게는 오래 전부터 진출한 조선족의 높은 인구구성비율이 앞으로 기업체 진출시 유리한 조건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V. 두만강하류 경제특구의 입지상의 문제점

1. 자연 환경의 제약점

일반적으로 경제특구 입지에서 자연조건의 영향은 극단적인 지역이 아니면 실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단설치에 필요한 평탄한 대지, 풍부한 용수, 온화한 기후조건, 그리고 제품과 원료 수송 접근에 용이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모든 지역이 입지로 적절하다.

두만강 하류에 훈춘지역에서 훈춘강 연안과 경신지역은 지형적으로 특구건설에 충분한 평탄한 지형을 갖고 있으며, 현재 건설하고 있는 변경 경제합작구지역도 이 지역에 계획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두만강 하류의 연안을 따라 그 입지조건은 자연적으로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하나는 지형적으로 하천이 先行적 특성을 갖고 있어 훈춘에서 경신간에는 하천 양안이 경사를 가진 峽谷을 이루고 있으며 같은 골짜기가 圈河에서 국경지역까지 연장되고 있어 사실상 하천양안에 자연적인 평탄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유리한 지역으로서 훈춘강 하류는 범람지역일 뿐 아니라, 많은 지류가 두만강으로 합류하고 있어 이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수문공사가 뒤따라야만 한다. 그리고 평지가 넓은 경신지역은 1987년 홍수때 대부분이 침수된 바 있어 하천범람에 취약한 지역임에 틀림 없다. 역시 洋館坪에서 防川간에는 대부분 10m이하의 지형이지만 河岸의 낮은 저지대는 저습지 내지 범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지역도 개발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는 지형특색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저지대에 널리 확산 형성된 砂丘의 分布로 보아 계절에 따라 강풍이나 해풍에 의해 사구의 모래가 유동적으로 이동할 경우 이로 인한 자연적 재해는 예측하기 어려워 진다는 점이다. 봄철에 이 지역에 강풍이 주기적으로 분다는 사실과 사구의 형태로 보아 이 지역 사구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속단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된다.

세번째 문제점은 겨울에 이 지역을 엄습하는 酷寒이다. 내륙 북부지역에 비하여 훈춘지역은 온난지역이지만 겨울기간에 영하 20℃이하의 최저기온일이 15일씩 계속되었던 기록으로 보아 최소한 4개월이 넘는 겨울동안에 공장과 시설을 적절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하면 한반도의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유리하지는 않다. 동시에 이 겨울기간중에 두만강이 결빙되어 수운활동이 정지되므로서 두만강을 이용하여 동해로 진출이 억제되는 시기가 나타난다. 이는 바로 이 기간중 두만강 수송을 적절히 대신 할 수 있는 철도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건설이 두만강 연안을 따라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 세가지 자연적 장애요소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자연 환경조건으로는 특구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지역으로 유리한 지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2. 자원활용과 생산구조

경제특구나 수출자유지역에 이용되는 자원은 대체로 제한적인 것이 특색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부분 자유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인 임산, 농산물, 광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국제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것이 특색이다. 훈춘지역은 대표적인 농업생산을 기초로하여 풍부한 임산자원개발 그리고 석탄, 유색물 속광, 건재 및 비금속 채굴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관련업체 16개). 그 밖에 식품과 음료제조업(22개 업체) 목재, 가구, 제지업(21개 업체) 등과 화학계열(8개 업체), 건축 및 비금속과 금속업(34)등이 주요 공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자원분포와 공업구조의 생산특색을 일반적인 경제 특구의 생산구조와 비교할 때 상호연계성이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즉 현재의 훈춘지역 산업구조상에 특구를 설치하여 기존 자원활용이라는 면에서 그 자원의 실용적인 전환이 어려워 입지적으로 유리한 지역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만일 연변지역에 매장된 석유자원을 기초로 하여 석유화학단지를 설치하고 이에 연계되는 섬유공업이나 기타 화학공업중심지를 개발한다면 농산자원이나 임산자원, 석탄자원등이 많은 효율성을 제고해 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의 자원실체를 기초로해서 특구를 설치할 경우 기존 산업구조와 유리되어 2원적인 산업체계를 이루게되어 노동력의 상호연계를 위한 시장 구성에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훈춘지역에 자원분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특구지역에 공급하게 될 자원이나 원료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이 지역자원의 가치가 높이 평가 받지 못하고 단지 이 지역 밖에서 공급되는 자원이나 원료에 의존하게 될 것이 분명해진다. 이 때 내륙 지역에서 조달될 경우 현재 교통 기반 시설로 보아 원거리 수송에 의존하게 되어 경제성이 의문시 될 강능성이 있다. 그러나 특구 설치 후 주변지역 원료의 대치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면 지역 발전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의 지역산업 정책이 그 동안 지역 자급을 중심으로 입지가 결정되었으며, 모두가 국영업체라는 점에서 자율적이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화를 통하여 지역간 경제 교류에 의한 지역 특성 내지 중심지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까닭에 새로운 형태의 특구가 적용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본다.

3. 노동력 공급시장의 문제점

수출자유지역내지 경제특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업단지와 달리 노동력 구성에서 남녀성비, 연령, 교육정도, 기술훈련등에 있어 요구되는 조건이 있다. 특히 개발지역내의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외국인 투자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노동 시장구성이 단순하지가 않다.

실제로 마산 수출자유지역이 노동고용이 최대에 달했던 1986년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고용에 여성고용이 76.6%였으며 섬유관련분야는 80%를 넘고 있다(Lee and others, 1987).

같은 자료 분석에 의하면 노동력의 68%가 20-24세의 연령으로 20대가 90%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평균 연령이 23.3세 였다. 교육정도는 79.2%가 10-12년의 교육을 받았으며 전체 고용인력의 평균 교육 수준은 남자 12.2년 여자가 11.8년이었다. 기술교육의 경우는 입사하여 받은 경우가 80%를 넘었다. 이 같은 자료는 마산 수출자유지역이 경제특구의 노동특색을 잘 반영하여 주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이에 반하여 훈춘지역의 인구 구성을 볼 때, 노동력 공급에서 인구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에 만족할 수 있는가 하는데 한번쯤 의문을 제기하여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 지역이 국경지역이라 전통적으로 남성위주의 인구구성이 이루어 왔던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인구의 성별구성으로 보아 특구를 유치하게 될 경우 많은 젊은 여성인구를 이 지역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지역의 조선인구에 대한 기대 역시 실제 노동력화에는 많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체의 조선족은 192만(1990년)으로 이들중 118만이 길림성에 거주하고 이중 대부분인 83.9천인이 연변조선족자치구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선족의 인구가 이 지역에서 타 지역에 이동으로 인하여 증가추세가 둔화될 뿐 아니라 훈춘은 198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 지역의 개발에 있어 조선족 노동력에 대한 특별한 매력이 우위를 이루기 전에 이들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조선족의 노동력화는 전망이 섞운것 만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미 전체 노동력 구성에서 연령에 관계 없이 여성인구가 남성인구에 비등한 수준으로 고용되어 있는 노동 시장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漢族을 포함하여 필요한 노동력의 수급은 전반적으로 유리한 조건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역개발에 요구되는 노동력의 연령 구조로 볼 때 필요한 노동시장은 이 지역의 노동력으로는 불가능하며 개발과 함께 타지역의 노동력 유입이 요구된다. 즉 15-25세에 달하는 여성노동력과 많은 조선족 노동력이 이 지역으로 유입되어야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측면은 중국 전체인구에 대한 노동력 구성에서 농업인구의 절대인구가 197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한 때 84%였던 비중이 1992년에 41%로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농촌노동력이 도시노동력으로 전환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점이다. 이 비율은 훈춘지역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의 경우 지역개발과 함께 유류노동력을 공업분야로 전환하기보다는 기존 고용체제내에서 전환되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사실상 현재 이 지역에서 농촌 거주 노동력의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기 전에 잠재적으로 공업분야로 이전 가능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녀 노동력은 거의 각 분야에 고용된 상태로 있기 때문이다.

4. 지역 연계산업의 기초 취약

두반강 하류 지역 개발과 이를러 유치되어야 할 산업 분야들이 대부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될 것은 물론이며 내수보다는 수출위주의 가공무역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 노동시장에 적절한 뒷바침외에 두가지 連繫가 뒷바침 되어야만 이 지역개발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이 지역에 설치되는 가공무역업체들이 필

요하는 기초원료나 반제품원료등이 현장에서 얼마나 제공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체로 이 지역의 풍부한 자원인 농산물, 임산물, 광산물 등과 같은 일차적인 자원들은 직접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무역에 적절되기가 어려운 것이 특색이다. 섬유공업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원사가 원거리 내지 해외에서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가공무역을 위한 공단을 설치할 것인가 선택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각종 유형의 공단이 설치되었을 때 이 공단내에서 소요되는 서비스와 각종 소모품을 훈춘시에서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로는 상당한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훈춘과 같이 농업과 광업기반 도시에서 출발한 도시에서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란 아직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도시기능이 다양하게 발달하고 분화될 때 이 지역에 설치될 공단들이 충분한 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하리라 믿는다.

둘째는 경제특구나 수출 자유지역의 외국인업체들은 초기에는 모든 원료의 반제품을 국외에서 들여와 단지 이 지역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립 내지 가공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지외에 관련기업체와의 연계망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 변동과 국제 시장 수급변화에 따라 보다 값싼 노동을 기초로 짧은 시간내에 생산하려 할 때 단지내의 조립내지 가공연계의 일부를 단지외에 하청을 주어 기간을 단축하거나 인건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같은 역외가공의 출현은 대부분 대도시 부근에 기존 관련 기업체의 유무, 기술수준, 그리고 임금 등 많은 조건이 허락될 때 가능해 진다. 그러므로 역외가공의 연계체계의 확산은 지역경제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단계를 구성하게 된다. 즉 역외가공을 수주할 수 있는 기존업체가 얼마나 기존 도시에 있는가 하는 점이 단지 유치 후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 훈춘의 경우 경제특구가 설치되어 운영될 때 사실상 이같은 역외가공 연계망을 구성하기에는 도시규모가 너무 작으며, 도시 산업경제 역시 분화되지 못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연변자치구 내의 도시들도 이를 뒷바침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훈춘에 기업체 관련구조를 보면 공업분야의 경우 총 140개 업체 중 全民所有制가 31개 集體所有制가 109개로 각 업종별로도 지역 수요에 맞게 1개씩으로 분포되어 있어 이 구성조직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 전에는 역외가공에 의한 하청 연계가 활성화되기 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제특구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는 최소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공급될 때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마산 수출자유지역이 부산대도시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심천도 홍콩과 경계를 하고 있으며 필리핀도 마닐라시와 50km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훈춘의 경우 인구가 20만에 미치지 못하며 주위에 연길시가 31만, 도문시가 14만, 용정시가 28만으로 대부분이 도시체계상으로 농촌기반의 자급적인 공간연계를 구성하고 있다. 즉 도시간에 기능상의 상호 의존적 연계 보다는 지역단위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는 자족도시로 성장 발달하고 있어 주변지역에 특히 경제특구에 필요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아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기반시설 건설과 특수시설의 분포

훈춘지역에 교통, 통신등의 기반시설이 기존 중국의 해안지역과 비교하여 취약한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 철도교통이 도문-훈춘-포시에트까지 연계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로는 좁은 2차선으로 현재의 지역경제를 유지하는데 충족할 정도이다. 앞으로 특구 건설에 따라 유발되는 교통량과 물량을 고려해 볼 때,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만 한다. 특히 가공무역에 의한 물동량의 해외 반출을 위해서는 훈춘의 독자적인 외항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와 같이 러시아의 포시에트항이나 북한의 나진, 선봉항을 이용하는 경우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국가간 갈등에 의해 항구 이용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두만강을 이용한 출해수로개발은 두만강 자체의 수문상의 문제점, 특히 많은 토사류의 퇴적과 이에 필요한 준설사업, 러시아와 북한 연안을 이용하는 문제, 방천항 개설에 따른 북한과의 문제, 겨울 4개월간 하천의 동결 등 여러가지 문제가 산적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수로는 비록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동량에서 제한적인 이용에 한정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훈춘지역은 특구 설치 후 각종 제품을 해외시장으로 운송을 위한 입지면에서 열등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같은 항구기반시설을 대치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국제공항의 건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연길에 있는 공항은 규모로 보아 국제공항으로 승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 지역의 물동량을 고려하고 백두산지역 관광자원개발에 따라 유발될 관광객의 잠재적 숫자를 고려하면 이 지역에 국제공항 건설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제공항 건설이나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이 특구 설치에 적절한 입지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요하는 까닭에 기존 사회기반 시설이 적정 수준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비하여 불리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삼국 국경을 따라 산재하고 있는 군사시설은 지역 개발에 많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경제지역 개방과 함께 서로 양해하여 군사시설을 모두 철수하더라도 전략적 지점에 대한 시설은 유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이같은 시설은 이 지역에 입주하게 될 많은 업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어려움으로 남게 될 것이다. 특히 이지역은 개방된 지역으로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외국인에게는 출입이 허가제로 사실상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경지역의 개발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장애 요소를 갖고 있는 특색이 있다.

6. 국경지역의 특성과 문제점

두만강 하류지역은 삼국의 접경지역으로 그간은 수차례 국경문제로 긴장이 되풀이 되었다. 중국이 만주지역에 대한 봉금령실시, 1869년 러시아와 국경분쟁, 1938년 일본과 러시아 간의 장고봉사건과 두만강 하류의 봉쇄, 1949이래 중국과 북한간에 두만강 경계

에 대한 협약 등 항상 국경선을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잠재해 왔다. 평화시에는 3국의 힘의 균형 유지가 국경을 따라 이루어지지만 개별국가의 국내 정치문제, 경제악화, 내란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그 영향이 미치는 지역은 바로 이 국경지역이 된다. 최근 김일성이 타계한 연후에 두만강 연안을 따라서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경계를 강화하였던 사실로도 그 민감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 특구에 유치되는 업체들이 대부분 외국인 업체이기 때문에 국경에 긴장이 시작되면 이 지역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 곳이라고 본다. 국경지역이 갖는 이같은 잠재적인 긴장과 불안 요소 때문에 지역개발에는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최근 방천항 건설이 중단된 이유에는 북한측이 부분적인 항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답사 중 현지에서 파악된 사실로서 두만강을 따라 중국측 하안에 건설될 축대의 높이를 결정하는데도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반면 이러한 긴장이 늘 있음에도 양안에 지류를 따라 많은 공해공장을 설치하여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관대하게 논의가 없이 유지, 방치되고 있는 곳이 국경지역이다. 이러한 국경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간의 협약이 최우선 되기 전에는 국경지역개발에 많은 장애 요소가 늘 상존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VII. 결 론

본 연구는 두만강 하류 훈춘지역의 지역구조 특성에 대한 현장 조사연구로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두만강 개발계획의 하나인 경제특구를 입지시키려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지역적 문제가 있는지 밝혀 보고자 하였다. 중국 남쪽 해안을 따라 건설된 경제특구는 한국의 기존 수출자유지역보다는 지역 범위가 넓으며, 수출 위주의 가공무역을 포함하여 주변지역의 지역 개발을 배경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입지선정에 고려된 사항이 지역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훈춘시 중심의 두만강 하류지역은 지역구조상 인구가 회소한 변경지역으로 농업과 채탄 중심의 산업이 주요 경제기반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외부와의 교통이 극히 제한된 지역으로 교통기반 구조가 취약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중국이 처음 경제특구를 설치하면서 추구하였던 해외시장의 접근성, 풍부한 노동력, 기반시설이 있는 대도시 부근, 해외중국인의 자본 투자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입지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훈춘 지역은 대부분이 하천 유역에 발달한 낮은 저지대로 구성된 제약점 외에 추운 기후적 조건과 해외 진출을 위한 교통망 구축의 애로, 기반시설과 기존 산업시설의 부족, 수출자유지역에 수요되는 원자재 공급원의 취약성, 제한된 노동시장, 조선족 인구의 유출 등과 같은 문제들이 확인되었다. 더우기 하청을 통한 지역연계 산업망의 구축이 어려우며 주변 대도시로부터 각종 서비스 기능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경지역에서 반복되는 예기치 않은 긴장과 군사적 대립의 잠재성 등은 이 지역에 경제특구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

에 개발되고 있는 변경합작경제구 수준의 규모는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지역구조의 보다 정확한 확인과 분석은 정밀한 지역자료가 보완되어야 가능하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현장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통계자료 및 지도

國家統計局人口統計司編

1991 『中國人口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國務院人口普查辦公室. 國家統計局人口統計司編

1993 『中國1990年 人口普查資料 第1-4冊』, 中國統計出版社.

國務院, 吉林省政府, 珲春市政府, 聯合國計劃開發署

1992 『有關珲春開發區 最新政策 及 資料總編』, 全國大中城市輕工供鎖 聯合體.

吉林省交通廳

1992 『吉林交通統計資料 1992』.

吉林省氣象局

1977. 7 『吉林省延邊朝鮮族自治州逐日氣象資料：1951-1973』.

吉林省琿春市旅游局 編制

1991 『琿春市旅游交通圖』

吉林省測繪制印大隊 編制

1993 『東北亞區域圖 1 : 4,000,000』

吉林省測繪制印大隊 編制

1993 『琿春市政區圖 1 : 350,000』

吉林省測繪制印大隊 編制

1993 『琿春市公路交通圖 1 : 350,000』

延吉市統計局 編

1993 『'93 延吉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延邊朝鮮族自治州計劃生育委員會編

1990 『延邊人口統計資料匯編』, 延邊大學出版部.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

1993 『延邊統計摘要：1985-1992』.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

1993 『延邊統計年鑑 1993』.

劉鐵祚

1993 『琿春企業名錄』, 延邊大學出版社.

琿春市外來客商投資服務中心

1993.6 『琿春企業一覽表』.

琿春市外來客商投資服務中心

1992 『琿春市邊境經濟合作區總體及小區規劃圖』.

琿春市人民政府

1990 『琿春市地名誌』.

琿春市人民政府

1993.4 『中國邊境開放城市 - 琿春, 政策匯編』.

琿春市人民政府

1993 『東北亞明珠 琿春』.

琿春市人民政府

1992.12 『中國邊境開放城市 - 琿春, 投資指南』.

琿春市人民政府

1992.12 『開發建設中的琿春』.

琿春市人民政府 編制

1991. 2 『琿春市地圖 1 : 200,000』.

琿春市統計局

1992 『琿春市 國民經濟統計資料 1992』.

琿春縣農業局

1985 『吉林省琿春縣土壤誌』, 琿春市土壤普查辦公室.

中國琿春邊境經濟合作區

1994. 1 『沸騰的琿春(활기찬 琿春)』, 琿春市邊境經濟合作區管理委員會.

中國人民解放軍總參謀部測繪局

1969 『琿春縣, 敬信公社, 馬滴達公社, 九沙坪, 1 : 100,000 지도』.

中國土地利用圖編輯委員會

1990 『1:1000,000 中國土地利用圖』, 科學出版社.

2. 국문 참고문헌

經濟企劃院 對外經濟調整室

1993 『TRADP 第3次 WG, PMC 會議資料(I, II)』.

國民民間經濟協議會

1991. 4 『豆滿江河口開發에 關한 中國側 構想』, 資料 91-20-0.

國民民間經濟協議會

1990.4, 『琿春市 概況』, 地域情報 90-01-05.

極東問題研究所 編,

1992 “北韓의 豆滿江地區 開發計劃과 그 推移,” 「極東問題」, 156, pp.22-33.

金圭淪

1992 “北韓經濟와 豆滿江 流域開發,” 「國際問題」, 263, pp.38-44.

김부광

1992 「두만강파일」, 교양신서, 대북연구소.

김성훈 · 김태홍 · 심의섭

1992 『동북아 경제권: 21세기 국가경영전략』, 比峰出版社.

金益洙 編

1994. 5 “豆滿江地域開發事業(TRADP)에 대한 분야별 評價,” 정책연구 94-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金益洙

1994. 5 “豆滿江地域開發計劃(TRADP): 최근 進展狀況과 향후 戰略構圖,” 미출간논문(서울대지리교육과 초청 세미나 논문, 1994. 5).

金學洙

1993. 3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 「政策研究」, 93-05,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金化燮

1991. 2 “東北아시아 經濟圈 構想과 協力方案-環東海地域을 中心으로-,” 「研究報告書」, 第219號, 產業研究院.

金泰弘

1991 『琿春 및 豆滿江開發의 內容과 展望』, 中蘇經濟研究, 2, pp.13-25.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東北亞 經濟協力의 與件과 展望,” 「政策研究」, pp.91-20.

두만강 지역 개발 조사보고서

1992 『동아시아포럼』, 제 3호, pp.8-41.

呂弼順

1992 “琿春市 물자원 이용현상 및 전망,” 「지리학연구」, 제20집, 한국지리교육학회, pp. 141-149.

民族統一研究院

199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統一情報分析 92-02.

吳勇錫

1991. 4 『中國 經濟特區 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吳鎮龍

1992 “中國과 豆滿江 開發,” 「CNAS북방경제」, 1(1), pp.45-59.

外務部

1993. 6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劉忠杰

1992. 2 “두만강의 수문 특성과 자원개발문제,” 서울대 지리교육과 특별강연초록.

劉忠杰, 沈惠淑

1993 『白頭山과 延邊朝鮮族 - 地理學的 研究-』, 서울: 白山出版社.

李琦錫 · 黃晚益 · 李惠恩

1986. 12 “中共 深圳經濟特區의 構造的 特性에 관한 研究,” 師大論叢, 제33집, pp.61-83.
임철호

1992 “琿春市 토지자원구조 조절연구,” 「지리학연구」, 제20집, 한국지리교육학회, pp. 125-132.

장삼환

1992 “두만강의 자연환경과 어류자원,” 「북한」, 250, 북한연구소, pp.30-37.

1993 “두만강 유역의 산림생태계통 분석,” 「북한」, 256, 북한연구소, pp.113-120.

1993 “연변 농업기후자원 및 그 이용,” 「지리학연구」, 제21집, 한국지리교육학회, pp. 81-119.

전송립

1991 『연변경제지리』, 연변인민출판사.

중화경제연구원 편(백남권 역)

1985. 6 『중공경제특구에 관한 연구』, 번역시리즈 제54호(OR), 산업경제연구원.
통일원 교류협력국

1991. 10 『두만강유역 경제특구개발관련 추진동향 보고』.

1991. 10 『UNDP 평양회의 관련 대책회의 보고』.

1991. 12 『두만강지역 개발관련 UNDP 기술조사단 타당성조사 보고서』.

3. 영문참고문헌

Beijing Review

1991 “Development of China's SEZ,” April, 8-14, 20-26.

Beijing Review

1992 “Tumen River Delta: Far East's Future Rotterdam,” April 20-26, 5-6.

Economic Research Center

1984 *Shenzhen Developing Special Economic Zone, Guandong Provinc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2 “Hinterland of Hope,” January, 16, 16-20.

Gu, Nian Liang

- 1987 *The Regional Socio-Economic Impacts of the Special Economic Zones of China*, Hong Kong-Macao Economic Research Centre, Guangdo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 Holm, A.
- 1992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olitical Economy for the TRAD Concept and Strategy," unpublished manuscript.
- Lee, Ki-Suk, Manik Hwang, and Hae Un Rii
- 1987 *A Study of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s of Free Export Zone on Regional Communities in Korea*, Submitted Research Report to IDRC, Canada.
-
- 1990 *Domestic Linkages and Export Processing Zones: A Study of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in Masan FEZ*, Korea, Final Report of the Project Funded by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Canada.
- Lee, Ki-Suk
- 1992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Free Export Zones in Far Eastern Russia," *Russian Studies*, No.2, Institutes of 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 SNU, pp.77-96: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
- 1993 December "Geographical Implications of the Tumen River Development(TRAD),"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ume 3, pp. 57-74.
- Phillips, D. R. and A. G. O. Yeh
- 1983 "China Experiments with Modernization: the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Geography*, Vol. 68, pp.289-300.
-
- 1989, "Special Economic Zones," in David Goodman, ed., *China's Regional Development*, London: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pp.112-134.
- Stauffer, R.
- 1992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Industrial Strategy for TREZ," unpublished manuscript. The Shearman & Sterling Institute and the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of Transcultural Study(ACT).
- 1992 *Report of a Symposium on East Asia: Prospects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Post-Cold War East Asia*, Tokyo, Japan, July 5, 1992.
- The World Bank
- 1992 *Export Processing Zones*, Policy and Research Series 20, Industry Development Division Industry and Energy Department and Trade Policy Division Country Economics Department.
- United Nations

- 1985 *An Evalu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s in Selected Asian Countries*, Bangkok: ESCAP/UNCTC Publication Series B, No.8.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 1991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Mission Report*(M. Miller, A. Holm and T. Kelleher), Pyongyang: Consultation with Participant Governments, 16-18 October 1991.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 1992 *RAS/92/430-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Seoul: Programme Management Committee First Meeting, 27-28 February, 1992.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 1993 *Master Plan for The Transportation Sector*, San Francisco, April.
-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UNIDO)
1991. 10 *Pre-Investment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a Free Economic Zone in Primorsky Region: Development Concept of Greater Vladivostok Free Export Zone*, Vienna.
- U.S. Department of State
- 1966 "China-U.S.S.R. Boundary," *The Geographer*, No.64.
- Yeung, Yue-man and Xu-wei Hu
- 1992 *China's Coastal Cities: Catalysts for Moderniza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Wang, J. C. and John H. Bradbury
- 1986 The Changing Industrial Geography of the Chinese Special Economic Zones, *Economic Geography*, Vol. 64-4, pp.307-320.
- Wong, K. Y. ed.
- 1982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China's Experiment in Modernization, (Hong Kong, The Hong Kong Geographical Association).
-
- 1987 "China's Special Economic Zone Experiment: An Appraisal," *Geografica Annaler*, 69(B).1, pp.27-40.
-
- 1991 "Special Economic Zones and Regional Development: A Case Study of Shantou, China," Paper presented at the 12th Meeting of PRESCO, Cairns, Australia, July 7-12, 1991.
- Wong, K. Y. and Chu, D. K. Y.
- 1981 "Export Processing Zones and Special Economic Zones as Generators of Economic Development: the Asian Experience," *Geografica Annaler*, Vol.66(B), No. 1, pp. 1-16.

-
- 1985 *Modernization in China: the Case of the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Wu, Chung-Tong
1985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The As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Vol.7, No. 2, p.280.
-
- 1991 "Subcontracting and Export Processing Zone Development," Paper presented to the Pacific Regional Science Organization 12 Meeting, Cairns, Australia, July, pp.7-12.

4. 종문 참고문헌

경제특구, 연해개방성시급각성시대외개방경제자료회편

1985 「중국경제특구년감: 1984 개방호」, 香港〈중국경제특구년감〉출판사.

高念良 等著

1989 「中國經濟特區的地區性影響」, 하루빈: 흑룡강인민출판사.

궁계서 · 정덕권

1985 「연변자연지리」, 연변인민출판사.

吉林日報延邊記者站, 延邊日報社編輯部, 延邊州口岸協 編

1992 『琿春 及 周邊國家(地區)概況』.

발전도상의 연변 편찬위원회

1990 『발전도상의 연변: 상 · 하』, 연변경제과학기술사회발전연구논집, 연변인민출판사.

方敏 · 金敏雄

1993 『東北亞明珠 琿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孫孺 · 許隆 主編

1988 『中國經濟特區的理論與實踐』, 北京: 經濟科學出版社.

沈惠淑

1993 “豆滿江하류지구-琿春시의 인구와 노동력자원,” 연변대학 지리학부 미출간논문.

沈惠淑

1993 『중국조선족:취락지명과 인구분포』, 연변대학출판사.

深圳經濟特區年鑑編輯委員會 編

1992 『深圳經濟特區年鑑』, 廣東人民出版社.

延邊朝鮮族自治州交通局

1992. 9 『朝陽川-琿春公路建設項目 建議書』.

劉忠杰 主編

1991 『長白山地理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袁樹人

1991 “圖們江河口 三角地 國際合作開發雑議,”『91연변대학 인문지리국제학술 토론회
론문 요지집』, 2.

李澍田 編

1990 『東北亞經濟圈研究詳叢』, 長白叢書研究系列, 吉林文史出版社.

李澍田

1990 『琿春史志』, 長白叢書(四集), 吉林文史出版社.

中國科學院地理研究所

1993 『中國國家經濟地圖集』, 中國地圖出版社.

丁士晟

1991.1, “東北亞 金三角 開發構想,”東北亞 區域 經濟開發 및 協力作業 研究討論會, 長
春.

陳才外 編

1993 “地緣經濟研究:東北亞區域合作與圖們江地區開發,”「人文地理」, 第8券 第2期.

陳才·袁樹人·王力

1991 “圖們江通海航行與東北亞區域,”『東北亞區域經濟開發與協作國際學術會論文集』,
東北師範大學東北亞地理研究所, 1991.1, 長春.

최 심 編

1993 『두만강 개발』, 연변대학출판사.

崔龍鶴·朴承憲 主編

1991 『東北亞金三角』, 延吉: 延邊人民出版社.

현룡남

1992 “연변조선족인구발전의 몇가지 특점,”『21세기로 달리는 중국 조선족』(김동화 ·
김승철 주편), 연변인민출판사.

琿春經濟開發區總體規劃辦公室 編

1989.4 『琿春經濟開發區總體規劃: 現狀分析與評論』, 琿春.

琿春文化藝術誌編輯委員會 編

1990 『琿春文化藝術誌』, 延吉.

琿春市外來客商投資服務中心

1993 『圖們江下游琿春 地區 港口, 鐵道開發規劃簡介』.

Regional Structure of the Lower Tumen River Area

Ki-Suk Lee, Ock Hee Lee, Zhong Jie Liu

The lower Tumen river area is located in the international boundary zone betwee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This study region is a triangle shaped territory defined by the Chinese side of the river tributary and including Hunchon city. Since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UNDP) launched an investigation for three development projects in Northeast Asia in 1991, this area has become a major designated area for the Special Economic Zone(SEZ) or the Export Processing Zone(EPZ) as well as an ideal key area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bordering countries. Also the Chinese local government is trying to develop this area as a gateway to the East Sea(Sea of Japan)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the Hunchun Border Economic Cooperation Zone. In relation to both the UNDP's plan and the Chinese efforts, this study questions whether this project is feasible in terms of current regional structure which is spatially characterized by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region, physical conditions, population distribution and potential labor mobility, economic base and industrial structure, and network systems. To analyze this region, this study primarily relied on two field trips conducted in 1992 and 1994, as well as data collected from government publications.

The lower Tumen river area can be described as a region of consisting of both flood plain and a hilly mountainous zone. The flood plain is a low-lying area along the river side and frequently suffers from irregular flooding. The wide developments of the old-sand dunes on both sides of the river implies many complicated and unknown geomorphological processes. Severe winter and seasonal strong winds influence the way of life including the agricultural system, housing type, and customs. Developed 200 years ago, one of the region's major characteristics is that a majority of the population is composed of Chinese-Koreans. Chinese-Koreans are a major source for the labor market and will play an important role for future development. Hunchun city's population is approximately 200,000. The economic base of the city largely relies on the primary sector such as agriculture, mining, forest, and their related industries. The manufacturing sector is still not fully developed. Network systems such as roads, railways, and airports are not ready to support full scale development. Recently new railways extended to the city and continued to extend toward the Russian border region. The development of the Tumen river water way is potentially important for this region. However, since the river was blocked by Japanese in 1938 and still remains unopened, progress on this

area has been slow. Progress is further hampered during a four month period in the winter when the river navigation is impossible. In addition, disputes in neighboring countries an annual sand deposition in the lower part of the river, further handicaps the development of the water wa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Tumen river area's regional structure remains predominantly primary industry oriented due to the spatial pattern of land use and occupation composition. Low density population and a remote location from major urban and industrial areas influence the marginal character of the country. In spite of these unique regional characteristics, plentiful resources and the potential deposition of many kinds of resources increase the likelihood future development.

Unlike the South China coastal area, where an SEZ was established 15 years ago, many of the Tumen river region's structural characteristics (including frequent flooding, strong winds and sand dunes, severe winter weather, and rugged mountains) are unsuitable for the establishment of a large scale of SEZ or EPZ. The existing population age structure may not be adequate to support the labor market on an SEZ. Because many firms would need to hire migrant labour forces from other parts of the region, various problems in terms of wage and quality will be created. Also, the number of Chinese-Koreans is decreasing in this region despite of the booming of the economy since 1991. In addition, the existing industries and raw resources in this region could not support the development of an SEZ system. In other words, the operation of an SEZ requires many kinds of semi-product materials from local markets. However, availability of supplies, and the operation of out-processing or subcontracting with local firms is unpredictable. The production facility and technology of local firms may not have reached the level of subcontracting stage. Generally, the lack of infrastructures creates another problem for the development of an SEZ. A final consideration is the instability and complexity of the international boundary zone. The lower Tumen river area has been known as a territorially disputed area and a militarily strategic area for all three nations. Conflicts have also arisen among the diverse races living in the this region.

Through total evaluation of the region, it may be concluded that location factors of the lower Tumen river area are not always feasible for the establishment of an SEZ or EPZ. If the government is willing to invest on the industrial infrastructure in this wide region, a more detailed follow-up investigation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이기석,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주소 : (135-101)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1-30

Tel : 880-7720(O), 514-7209(H)

이옥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과 강사
주소 : (140-114)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 산호아파트 A-1206
Tel : 360-2656(O), 712-6004(H)

류충걸, 중국 길림성 연변대학 교수
주소 : 중국 길림성 연길시 공원로
Tel : 86-433-515921(O), 86-433-523226(H)